

2015년도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문화진흥회 · 한국방송공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시청자미디어재단

일 시 2015년10월6일(화)

장 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14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후에 실시하는 방통위를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 역시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대상 기관 중에 조대현 KBS사장은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방문 관계로 금동수 부사장이 사장을 대신하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관증인 선서는 서면에 의한 증인선서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방통위 허원제 위원께서 어제부로 부위원장 임기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김재홍 위원이 방통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해진 위원님……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세부적인 견해도 엇갈리는 점이 있습니다만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을 했고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사생활 침해와 또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준 위원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인터넷 환경이나 스마트폰 이용환경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회에 따른 제도 정비도 이른바 다른 분야처럼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분야와 스마트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제도 분야를 진화시키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미방위 산하의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와 성안 작업을 구체화시킬 것을 제안드리고, 양당 간사께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방통위에서도 그동안 간헐적으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 또 연구도 일

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미방위 산하의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방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문 담당관을 지정을 하셔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그러면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통위에서 방송협찬고지 규칙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인데요. 광고규제가 심하고 이게 아직 잘 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찬을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각 방송사별로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협찬고지 규칙안이 광고효과를 금지한 심의규정하고 충돌하는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협찬도 솔직히 말하면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데 직접광고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뿐이지 협찬하는 협찬주들은 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그것을 전면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또 협찬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광고효과를 인정해 준다는가 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찬수입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방송사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부실한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시스템화도 안 돼 있거든요. 방통위에서 제작비 검증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만 여기에 협찬수입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제출된 자료를 검증할 수단은 아직은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찬이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 차원, 각 방송사는 물론이고 방통위 차원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회계상 광고와 협찬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광고·협찬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런 회계분리를 잘못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해서 방송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확한 회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이것은 다른 말씀인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민방위 상황 시에 도로터널이라든지 지하공간에서 라디오나 DMB를 통한 상황 수신이 현재는 거의 불통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라디오·DMB를 통한 수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지금은 거의 수신이 불능이거나 전국의 도로터널이나 지하공간, 지하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도로터널만 생각하더라도 수신이 거의 제로 상태이거나 아니면 수신불량률이 거의 90%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고 수신이 되는 도로터널이 열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 9월에 입법 발효를 해 가지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라디오·DMB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관련 관리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법이 이제 시행 1년밖에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은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이 4억 5000인가 그렇고 내년도에 9억인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계기 하나에 4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속도로 가면 굉장히 속도가 더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철도터널이나 지하공간 그다음에 도로터널에 맞는 중계기를 다 설치하려면 2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시설관리주체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예산은 우선 실태 점검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상징성이 있는데를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컨대는 도로터널

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디오중계기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철도터널이나 지하공간에는 DMB중계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법이 빨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효중 위원장님, 유해매체물 심의 이후에 대체적으로 조치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늘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돼 온 게 해외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해외 공조를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특히 국가보안법 유해매체물 이런 경우는 나라마다 또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공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각국이 공통적으로 유해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터폴을 통해서도 그렇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조를 해서 우회 사이트를 통한 접속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이것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을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협력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 박효중** 예, 그래서 아무튼 금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관하고 자율적으로…… 사실 그런 유해정보, 특히 포르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또 저희들하고 공조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였고 지금 사실 그런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해진 위원**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개발 쪽은 진행이 없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 박효중** 예,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의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앞으로 어쨌든 미래부 그다음에 방통위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우회……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고영주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정호준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병헌 위원** 좌경화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표를 여전히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형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심리전과 사상전 그리고 미디어 문화전쟁으로 사실상의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전병헌 위원** 본인이 받은 추천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추천서 첨부된 내용에?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저를 추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쓴 모양인데 그건 제 글이 아닙니다.

○**전병헌 위원** 거기가 이른바 소위 애국진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에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같은 진영이잖아요? 문재인 변호사가 소위 부림사건을 변호했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로 확신할 정도면, 그분들의 추천서를 받은 정도라면 그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헌 위원** 방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전·사상전·미디어 문화전쟁으로 사실상의 내전 중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성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병헌 위원** 대한민국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습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을 자꾸 말씀드리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전병헌 위원** 아니지요. 개인 생각이 아니라

방통위원장으로 박근혜정부의 주요 요직인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 그리고 특히 법조인 출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하셔야지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물론 그건 아닌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사법부에 관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병헌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썄, 일부 좌경화되었다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개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병헌 위원** 옆에 아까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이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친일인명사전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지성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국가 분열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병헌 위원**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공영방송은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이나 언론은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생각하고 답변하시고 계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매우 초월돼 있고 동떨어진 분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추천서나 본인의 소신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이른바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방통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재론해서 이것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그것을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최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지금 최 위원장하고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고, 특히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방송은 다양성과 공정성·독립성·중립성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 극단적인 사고와는 가장 맞지 않은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편견과 주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추천서를 받으신 분을 이사로 선임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결자해지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 이사장께 물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법조 후배들이 소위 고영주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장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전병헌 위원** 서울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라는 발언은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방송의 건전한 문화 발전을 위하는 방문진 이사장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후배 법조인들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뭐를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요구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병헌 위원** 자진 사퇴하시라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앞으로 방문진

이사장 본분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업무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병헌 위원 지금 방문진 이사장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엇그제 국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태도와 발언내용이 모두가 다 어긋나고 있고 자질과 전문성에서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로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할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돼야 할 그런 방문진 이사장에 극단적 사고의 편향성을 가지신 분이, 더 더욱이 제1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시는 분이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것이고 또 후배 법조인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러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본인께서 어떠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드시피 제가 공안업무를 전문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이념인 것을 밝혀냈고 또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것을 밝혀냈고 또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인 것을 밝혀냈고 또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 제가 그런 일들을 해 왔다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그것은 공안검사로 다시 돌아가서 하시든가 할 일이고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퇴장하시라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을 추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이미 본분에 어긋나고 있잖아요? 제1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장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徐相箕 委員 위원장님, 시간 좀 제대로 하시지요.

○위원장 홍문종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060 성인전화 서비스 성인인증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방식이 개선되었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선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제는 휴대폰 번호를 받고 생년월일 입력하고 그다음에 통신사를 선택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 인증을 한 번 할 때마다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권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자들이 이런 정상적인 절차대로 성인 인증을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감독이 소홀해지면 다른 불법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점검한다고요 저희들이 여러 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 번호하고 생년월일, 통신사 정보를 직접 받아 가지고 성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런 성인 인증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거의 간주가 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권은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정상적인 멘트라면 ‘성인 인증을 하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권은희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더 눌러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서비스 이용고객은 광고 수신 동의 회원으로 인정되어 광고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 후에 어디 어디에서 광고성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멘트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23조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정보를 딴 데로 활용할 때는 이것은 불법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규정에 해당합니까, 이런 부분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조항에 위반해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수신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해서 광고 수신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이용자가 선택할 부분이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광고 수집에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 지금 지적하신 그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뒤에 광고성 그것을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안 해도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자기들이 막 사용을 해도 법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어쨌든 성인 인증 절차는 상당 부분 개선됐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광고성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하는 이런 풍선효과가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실은 성인 인증 060 사이트 말고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꽤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규모가 큰 데서부터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보다도 우선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 부분도 꼭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권은희 위원 얼마 전에 워터파크 샤워장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돼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1100여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4년에는 6600건으로 한 5년 사이에 6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에 초상권 침해 피해로 심의 신청한 건수가 그 또한 6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초상권 침해건수의 경우에 동영상이나 사진에 신고자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것으로 단순한 초상권 침해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셀카나 몰래카메라로 찍은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이런 워터파크 샤워장 노출 동영상이나 셀카, 몰래카메라로 찍은 음란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하여튼 워터파크 몰카가 8월 17일 날 사실 발생을 했는데 그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해서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월 한 15일 정도 되니까 건수가 거의, 많이 줄어들어서 한 2건 정도인데, 그래서 일단 하여튼 워터파크 몰카에 관련한 이런 불법 정보, 동영상 유포에 대한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파악합니다.

○권은희 위원 제가 살펴보니깐요, 주로 방심위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삭제하기에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 심의한 건수 중에서 방심위가 자체 인지를 통해서 심의한 건수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퍼져 나갈 경우에는 개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자체 인지 건수를 높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백한 불법행위잖아요. 그런데도 방심위는 오직 사이트 차단하고 삭제하는 데 급급한데, 이런 경우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견해에

저희들이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온라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사실 지금도 고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법당국하고도 공조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정호준입니다.

고영주 이사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같고 다른 것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영주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상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념과 사상의 성 안에 고립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기준에 다양성·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야당 소속의 현직 단체장과 위원들이 친북인명사전에 오른 이유를 저희가 물어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사람이 아닌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행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정호준 위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인적을 보겠습니다. 2002년에 방북을 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뵙고 난 다음에 '솔직하고 거침 없는 사람이다. 대하기 편한 사람으로 느꼈다. 시원시원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자서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일관된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과거 언급도 적극의 수장을 찬양한 명백한 친북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방송계 인물 중에는 현재 우리 KBS 이인호 이사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또 친북인명사전에 오른 장만길 교수와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창립한 창립

자이자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제연구소는 보수단체로부터 좌파 사학계의 본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으로 볼 때는 이인호 KBS이사장도 친북행위자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과거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각각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일관된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 친북행위자 또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이념의 스펙트럼과 생각이 이런 관점으로 볼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해서 여쭙 보는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호준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작업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준 위원 예?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선정 작업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정호준 위원 무슨 선정 작업이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게 뭔데,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들어가 있는 아 혼아홉 분하고……

○정호준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아니고 행위를 보고 과거에 행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친북을 하고 종북을 하고 공산주의냐, 이것을 여쭙 본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의 그런 프레임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제 판단 기준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호준 위원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저번에 이사장님께서 보여 주시고 발언하신 모습은 오해가 아니라 굉장히 편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요.

○정호준 위원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느냐 물어 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준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인데……

○**정호준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사상적으로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편협된 분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방문진 이사장님께서 과거에 행동을 하셨던 부분은 이사장으로 되시기 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문진 이사장도 일종의 공인이시니까……

○**정호준 위원**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편협된 것이 공정방송, 공영방송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되는지 의심이 굉장히 갑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께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을 마친 뒤에 2013년 4월에 김포대학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았었습니다.

위원장님, 현행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된 겁니까? 이런분을 어떻게 방문진 이사장으로 앉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호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위원장님, 고영주 이사장님은 이렇게 정치적

이념적 역사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이라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취지를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파렴치하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확실해보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MBC와 방문진 그리고 방통위,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게 뻔합니다. 임명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법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철회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사장으로 임명되시기 전의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무조건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실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용 지금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사장으로서 임명되신 이후에 그런 자리의 그런 중요함을 스스로 깨달으시고 나름대로 이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실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최성준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KBS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공영방송이 상업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정부예산에 의존한다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강길부 위원** 따라서 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재원은 수신료인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의 확정을 위해서 KBS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구노력 또는 공정성 확보, 국민 공감대 형성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류열풍을 재점화하고 또 특히 방송프로그램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문화의 대외확산을 통해서 콘텐츠 수출은 물론이고 한류문화 확산이라든지 국가이미지 개선, 해외관광객 유치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창조해서 진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KBS수신료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방송기술 실현을 앞당기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나 또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광고에 의존하는 비율이 없거나 아주 미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들도 다 그와 같은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KBS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모습은 굉장히 아이디얼(ideal)한,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달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느 정도 KBS가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신다면 수신료를 인상해서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34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수신료가 이번 국회에서 좀 정상화가 돼서 KBS가 한 단계 더 공영방송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업자들이 주요 스포츠경기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강길부 위원** 그런데 여기 서비스 화면에 응원하기라는 채팅창을 통해서, 물론 응원의 글도 보이지만 욕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불법 유

해정보, 음란사이트, 비아그라와 같은 약품판매 이런 글들도 함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실에서 직접 전화로 신고하기 위해서 포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참 유감입니다.

○**강길부 위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이런 일부 포털사의 고객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에 한번 확인해 보면 실시간 중계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심의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위원** 또 그동안 방심위에서 조치한 사항도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인정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주요 포털사는 방심위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 유포정보 유통 방지에 노력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맞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상호 간에 불법유포정보 유통방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의지를 가진다면 실시간 스포츠 중계에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와 같은 문제점이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려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포털하고 말하자면 자율심의의 약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고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또 자체 모니터링체도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빅데이터 비식별조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이런 비식별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비식별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감시나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제출하신 법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작년 연말에 제정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라는 하나의 가치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또 다른 가치를 조화롭게 균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조화로운 균형의 핵심적인 내용이 비식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점들을 저희가 면밀히 연구해서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자료요청 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방통위는 2008년 KBS이사 신태섭 교수를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된 회의일지, 회의요약본, 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신태섭 KBS이사 해임 관련 기록 일체 요청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영주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임명장 받으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최성준 위원장님한테 받았습니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누가 나를 여기에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셨지요?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썄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위원** 또 말 바꾸기 하시네.

지금부터 제가 여쭙는 것에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김기춘 실장 잘 아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제가 대검 공안 연구관일 때 총장으로 모셨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도 만나신 적 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물론……

○**최민희 위원** 종종 만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명권자인 누가 나를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3년 10월에 우파단체와 함께 김기춘·남재준 실장 만나셨더라고요.

이때 김기춘 실장 만났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만났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때 김기춘 실장만 만난 게 아니에요. 청와대 정무수석도 만났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때 같이 배석 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때 무슨 얘기 주로 나누셨는지 기억 안 나시지요, 오래 돼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김기춘 실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어서 방문진 이사장 준 걸까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쪽 얘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선언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셨으며 통일 연방제를 비롯한 선구적인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민중민주주의자이고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주장해 오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 답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공산주의의 변형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비슷하지요.

○최민희 위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2008년도에……

○최민희 위원 짧게 ‘예, 아니오’로 답해 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드렸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위원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자,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럼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맞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전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고 하셨다가 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국사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위원 역사학자로 바꾸셨는데 다시 국사학자로 환원……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역사학자라고 말씀하셔서 역사학자가 아니고 국사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총명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생각이 저하고 아주 많이 다르세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964년 김일성 교시가 남조선에서 똥똥한 사람은 데모 내보내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서 사법부에 침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 하신 적 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최민희 위원 어느 판사가 김일성 장학생인지는 모르나 북한의 사법부 침투전술이 상당히 성공했다 이런 주장 하신 적 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말 하신 거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김일성의 지시가 있었는데 북한 같은 체제하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민희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 보십시오.

어느 판사가 김일성 장학생인지는 모르나 북한의 사법부 침투전술이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맞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그러면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뜻이지요, 성공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누가 김일성 장학생인지는 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 김일성 장학생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모른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사법부에?

맞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은 과거 발언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우리 건국 직후에……

○**최민희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도 있을까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물론 있다고 봐야지요.

○**최민희 위원** 검찰에도 있을까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물론입니다. 우리 건국 직후에 검사도 프락치로……

○**최민희 위원** 지금 현재, 과거의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지요. 있을 수 있지요.

○**최민희 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지요.

○**최민희 위원** 말 바꾸지 마시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뭘 바꿨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최민희 위원** 새누리당에도 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가능성은 어디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

○**최민희 위원** 독일 얘기 하지 마시고요.

김문수 전 지사는 서노련 사건으로 고문당하고 투옥됐었는데 공산주의자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분은 확실히 전향했다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과거에

그런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전향했다고 명백하게……

○**최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맞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민중당 하시던 이재오 의원님도 공산주의자 맞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과거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최민희 위원** 전향하셨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이렇게 하시다 보니 지금 일베의 영웅이 되셨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렇습니까?

○**최민희 위원** 예, 그래서 일베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김무성 대표를 내보내고 고영주 변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일베의 수호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고영주 장군’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것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확실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일베는 아시지요? 좋으세요, 이런 평가? 왜 웃으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민희 위원**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민희 위원** 그럼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 부분에는 지난번에 질문하셔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

○**최민희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최민희 위원** 지금 고영주 이사장과 저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최민희 위원** 이게 정상적인 질의 답변입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전협의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임명권을 행사한 합의제 기구의 일원으로서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민희 위원** 이것 국민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정말 불가항력적인 거부에 부딪혔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상임위원 간에 사전협의 한 번도 안 하고 인선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인선을 결정했다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전 2012년, 2009년, 2006년, 2003년, 제가 자료를 다 정리해 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상임위원들이 합의한 방송법 말고 공영방송 이사 인선 기준과 원칙이 있었고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시행계획을 짤 때 한 달여 전에 만든 계획에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제한규정을 둘 수 없다는 말씀인데 법은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도덕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시행세칙 운영을 위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은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그것을 미루고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참석 안 한 1번은 그냥 여권 세 분 상임위원의 단독 회의를 열어서 매우 중요한 일반 안건 8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공직자로서 책임을 더 이상 기피할 수 없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민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문종** 예, 박민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최민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민식 위원** 질의 끝나셨지 않습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민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최민희 위원** 아니요,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답변을 마저 듣는데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박민식 위원** 지금 다 안 하셨습니까?

지금 새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님 다 안 하셨습니까, 답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답변을 드리는 도중이었는데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박민식 위원** 아니, 지금 누구 대변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 할 필요 없어요.

○**최민희 위원** 아니, 왜 삿대질하고 그러세요?

○**박민식 위원** 무슨 삿대질입니까?

○**최민희 위원** 마무리를 안 하시고……

○**박민식 위원** 적정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 제가 뭘 합리적이었지 않았습니까?

○**박민식 위원** 아니, 방통위 합의제 구성원은 모릅니까?

○**최민희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발언이 끝나면……

○**박민식 위원** 발언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 최민희 위원님 발언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내 주셔야지……

○**류지영 위원** 시간이 지났잖아요, 벌써. 다 끝났잖아요.

○**위원장 홍문종** 잠깐만요. 발언이 끝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발언 끝났지 않습니까? 발언 끝나서 지금……

○**최민희 위원** 왜 저한테는 수고했다고 마무리 안 해 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민식 위원** 제가 우선 동료 위원님의,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우선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서. 방통위는 다섯 분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최민희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국회에 오시면, 최성준 위원장이 없을 때

는 방통위를 대표해서 오시는 겁니다. 특정 정파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그런 식의 태도로 국회에 들어오시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신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본인이 입장을 정리하셔서 방통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의 대변인으로 올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송호창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류지영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홍문종** 한 분씩만 하십시오.

○**우상호 위원** 제가 야당을 대신해서……

김재홍 부위원장은 최민희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거나 혹은 여당 김무성 대표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실을 위원의 질의에 솔직하게 대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정파적입니까?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파적인 것이지, 저런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게 왜 정파적입니까?

본인의 의사에 발언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는 있으나 지적의 내용이 정확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야당 위원이 어떻게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상대로 이러저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좀 균형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위원** 저도……

○**배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류지영 위원님 발언 순서예요.

○**류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예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방통위 소관기관의 국정감사잖아요, 종합감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어느 한 분에 대해서 꼭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전부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영주 이사장님에 대해서 청문회처럼 그렇게 할 자료가 많거나 질의가 많다면 양당 간 간사 합의해서 따로 시간을 만드세요. 저희조차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류지영 위원** 아니, 양당 간 간사 합의해서…… 저희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정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배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최민희 위원님 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류지영 위원** 아니요, 저도 존경합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MBC라는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지원 그리고 그의 공공성,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수장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청문회 개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국감장에서 있었던 정말 깜짝 놀랄 발언들 때문에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저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나에게 주어진 7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제가 엄청 많이 보도자료 냈거든요. 통신비 관련해서 리베이트 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뭔가 물을 때는 저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묻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제가 위원님의 질의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최민희 위원** 지난번에 맨날 제 얘기 중에……

○**류지영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길게 주세요, 위원장님?

○**최민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시간 다 쓰시고……

○**위원장 홍문종** 자,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두 분씩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전병헌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문종** 방문진 이사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따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시간을 만들든지 하고요, 오늘은 방통위 국정감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병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문병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오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적법한 또 적절한 미방위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방문진 이사, KBS 이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듯이 부적절한 분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방통위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업무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지요. 그런 점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라든가 문제 제기는 적법한 것이고,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니 마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민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병주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 나오는 것과 답변을 듣다 보니 방문진 이사장 선임 절차 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방금 전에 김재홍 부위원장께서 상임위원들 간에 사전 협의 없이 이사장 선임이 됐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임절차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류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류지영 위원 방통위원장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그동안 불법 지원금에 의한 시장 과열 또 이용자의 합리적인…… 방해와 불법 판매라는 특정 유통점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 법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감사합니다.

○류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고 폰 선보상제, 다단계 판매 등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도 일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단통법 실시로 핸드폰 중소 유통망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통신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불법적인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시장에서 위법사항을 봐 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류지영 위원 단통법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통 시장의 유통 구조 구축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제정되었으니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일부의 불법이 지속될 경우에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방통위가 고생한 보람이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향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또 일부라도 문제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서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시장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다만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시고 또 현행 단통법에 너무 만족만 하지 마시고요, 시장과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발전시켜 주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이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제시하신 것처럼 최근에 영업정지를 하는 SKT 신규모집 금지 기

간 동안에 일부 지원금 과다 지급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또 대다수의 언론들이 우려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계속 단속을 해 나가면서 또한 좀 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서 공개된 ‘신서유기’라는 예능 프로그램 들어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네이버에서 총 23회의 콘텐츠가 4600만 건이 재생되었고요. 회당 평균 200만 건이 재생되었으니까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유명 예능 PD와 연예인들이 만든 이 콘텐츠가 시청자들이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보던 일반 예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증권가의 분석에 의하면 웹 전용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가 방송 프로그램에 비해서 매우 낮지만 주요 타겟 시청자들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효율성이 높아서 향후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류 스타 EXO를 내세운 웹 드라마의 경우에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7개국에 동시에 방송되어서 조회가 5000만 건을 기록하고, 미국으로 수출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가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웹 방송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제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하지만 기존의 등급분류 심의규정은 웹 전용 콘텐츠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 웹 전용 콘텐츠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지영 위원**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처음에 언급했던 ‘신서유기’의 영상입니다. 해당 콘텐츠에 청소년이나 아동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잠깐 틀어 줄 수 있나요?

(동영상 상영)

지금 잘 안 되나 본데, 비속어가 나오고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못 보셨는데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웹 콘텐츠 일부에서는 지상파방송에서는 접하기 힘든 발언이나 문법, 맞춤법을 무시한 자막들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송과 수신, 이런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방송과 인터넷의 구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웹 전용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과 또 이에 따른 심의사항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고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일종의 통신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급분류도 대상이 아닌 것이 되고, 그래서 통신 심의 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이런 것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다.

방문진 이사장님, 아까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

의자냐고 물으니까 형사상 책임 때문에 대답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만약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하시면 형사상 책임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견해를 바꾸려니까 형사소추된 것과 어긋나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제가 고소된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오늘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옛날에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공산주의자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사상을 동조한 이적행위자가 되는 것 맞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안 문제의 전문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모를 때 제가 먼저 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겠지요.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한미 문제, 문재인 대표가 평소에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핀 것 국민들이 다 알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상에 대해서 다 알고 투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한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자라는 것 아니에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렇지만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어떤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최원식 위원 그러면 알고 찍은 사람들은 이적행위자겠네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썽요, 알면서 찍었으면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최원식 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야겠네요, 알고 찍으셨는지. 그러면 아마 이적행위자가 분류가 되겠네요.

그다음에요, 이번에 공모했을 때 추천서 보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못 봤습니다.

○최원식 위원 못 보셨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원식 위원 최인식 이분이 쓴 추천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못 봤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쭙 볼게요, 이런 인식에 동의를 하시는지.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방송은 우리 사회 불안의 근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방송이 엉망진창인 데 대해서 좌경노조를 탓한다’, 이런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원식 위원 동의 안 하신다고요?

그다음에 이 성명서가 첨부돼 있어요. 성명서를 보면 참 섬뜩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상 내전 중이다. 총칼 들고 싸워 사람 몸뚱이를 죽이고 땅을 점령하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소통의 수단인 미디어와 내용을 장악하여 결국은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머릿속으로부터 곧 생각을 장악하는 심리전, 사상전, 시쳇말로 문화 전쟁 또는 미디어 전쟁이다. 그중에서 공영방송이 요체다’, 추천서에 이런 성명서가 첨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이 운동을 했던 분들이,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 이런 운동을 했던 분들이 첨부한 생각이어서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조금 표현이 과격한데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요.

○최원식 위원 일치한다? 지금 미디어 전쟁 중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해서 오신 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법부가,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좌경화됐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슷한 표현.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원식 위원 그러면 그 좌경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제가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3차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을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교수님들 두 분하고 3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10명을 담당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최원식 위원 좀 짧게 요약해 주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러니까 한반도 내 국가적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통성

이 북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에 8명이 됐습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판사 중에서 좌경화되었다고 판단하는 판사가 누구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최원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사장님의 그런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법조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근거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그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좌경화된 판사가 누구인지를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특히 지난번 부림사건 재판부는 좌경화되었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평소에 법조인들 많이 상대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나이가 들든 간에 좌경화된 판사가 누구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썽요, 그것을 제가 준비해 온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마 지금 애국진영에서 그것을……

○최원식 위원 분류작업 중이에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최원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조만간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MBC 노조가 좌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것은 아직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최원식 위원 아까 검찰도 좌경화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찰은 친정입니까 더 아실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좌경화된 검사가 누구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제가 2005년도에 검사 임용시험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2년을 거치면서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한번 경험을 해 가지고……

○최원식 위원 그게 누구입니까, 얘기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썽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것을 덜 놀랐는데 그 당시 검찰국장, 같이 면접시험을 보던 검찰국장이 이 양반은 그런 걸 처음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 도대체 검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런데 다행스럽게 검찰로 오게 되면 층층이하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교정이 됩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국사학자 중에서 90%가 좌경화됐다 그러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원식 위원 누구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최소한도 그것은 제가 이름은 몰라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대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몇 년 전에 교과서에……

○최원식 위원 대시지 않으려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말씀을 들어 보세요.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체제인 것을 분명히 하라고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최원식 위원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과부 산하 단체입니다. 그중에 9명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좌경화됐다고 봐야지요.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계신 소위 애국진영에서는 이사장님이 여태까지 애국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잘 싸워왔다고 평가하는 것 들으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원식 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애국진영에서 이사장님이 여태까지 애국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잘 싸워 왔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읽히기로는 아마 사회 각지에 포진된 좌경화된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러시면 이사장님 말이지요, 검찰·국사학자·사법부에 포진돼 있는 좌경 세력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통진당이 위헌 정당이다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원식 위원** 지금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 다른 질문을.....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 침투돼 있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 것을 제가 이론 구성을 해서, 청원을 해서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통진당의 간부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고발을 해 놓고.....

○**최원식 위원** 사법부·검찰·역사학회에 포진돼 있는 좌경세력을, 이 새누리당도 일부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기본적으로 좌경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해야 그때 처벌을 하는 거지요.

○**최원식 위원** 판결 내렸잖아요. 부립사건, 판사들 판결 내렸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우리나라는 부당재판제라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민병주 위원**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민병주입니다.

방문진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 볼게요.

일단 방문진 이사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면서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역할과 또 방문진의 기능, 그리고 향후에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

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방송이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방송의 경영은 어차피 문화방송의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고,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문화방송의 실적을 봐서 그것이 이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나중에 경영에 반영을 해서 결국은 문화방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그리고 중립성,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오늘부터 부위원장님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우선 부위원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 방통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공무원 자리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공무원이시지요. 그러면 기존에 상임위원이실 때하고 부위원장이 되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추가적인 임무가, 역할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주 위원** 추가적인 임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추가적인 임무는 저를 뽑아 주신 상임위원님, 위원장님들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잘 살려 나가는 게 추가적인 역할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방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의 역할을 먼저 여쭙 본 거고요. 추가적인 의미는 다른 거고, 원목적, 추가적인 의미 말고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물론 법에는

위원장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행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상임위원단과 전체회의의 운영에 도움이 되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민병주 위원** 상임위원단과요? 지금 잘 못 들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단, 5명의 상임위원단이 있고요, 전체회의가 있고요. 그 운영에……

○**민병주 위원** 아, 상임위원단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방송의 기본정책, 물론 통신시장 사후 규제입니다. 방송의 기본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공정성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주 위원** 공정성·중립성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방통위 내에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토론 합의과정에 참여했고 그 다수, 중론이든지, 표결이든지 참여했으면 거기에 승복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처음부터 조금 더 협의 요청이 있으면……

○**민병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 볼게요.

참여하는 부분을 누가 강제적으로 막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판단했을 때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고 갈 때에는 더 이상 저는 참여할 수 없다 하고 퇴장한 적이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도 똑같이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것은 상임위원할 때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문진 이사장 선임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에 다 표출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위원장으로서는 부위원장의 역할로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과거 상임위원 때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그 정도로 마치고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방통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러셨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겁니다.

○**민병주 위원** 본 위원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바일 접근성 준수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두 번째는 가전정보 접근성 준수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가정……

○**민병주 위원** 가전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가전정보요?

○**민병주 위원** 예,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방송사의 다시보기 화면에서 화면해설이 불가능하고 저가 경쟁 유발로 인해서 화면해설 방송의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함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시보기 화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방송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바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하고 가전정보 웹 접근성 준수는 다른 부처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아마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다른 부처하고 논의 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원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다음은 선택약정할인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단말기유통법 하위법령인 지원금 공시에 관한 고시인데요. 제2조를 보시면 이용자에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 내용과 방법이 지금 화면에 떠 있고요.

이통사가 공시해야 할 내용에 처음부터 20% 요금할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당시에 그 부분에서 미처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표가 어제 자 방통위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유리한지를 표기해 놓은 건데요. 방통위가 고시 개정 없이 단순히 권고를 통해서 20% 요금할인제의 총할인액을 게시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 보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 것처럼……

조금만 더 주십시오. 10초만 더 주세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문중 위원장, 박민식 간사와 사회교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고시에 단말기지원금과 그다음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사이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규정해 놓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시 개정에 앞서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유통 현장에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이통사에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게시를 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고시를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고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시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제도 유형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부평갑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심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문병호 위원** MBC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와 방송 출연자가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다. 또 우리나라 국사학자의 90%가 좌경화 또는 공산화돼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 그게 방송 제재 대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게 좀 가상적 상황이라서, 하여튼 현실적 상황이 닥치면 그때 저희들 심의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저희들이 민원도 받고 있고 또 물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문병호 위원** 그동안에 방심위의 제재 내용을 보면 이 정도 같으면 제재 사항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문진 이사 뽑을 때 고영주 이사장이 낸 서류를 보니까 말이지요, 결격사유 확인서, 이게 지금 법에 나온 6가지에 해당 안 된다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재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검사 재직 시에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모 씨가 쓴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출한 서류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것 정말 한심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학력증명서가 더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한 나라의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고 이사장을 뽑는 절차가 말이지요, 너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를 보고 이사를 선정한단 말입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그래 놓고 말이지요…… 뭘니까, 이게?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분을 이사로 뽑았습니까? 누구의 부탁을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이사 선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문병호 위원** 투표를 통했는데 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누가 이분을 추천하고 누가 부탁을 했어요? 이분은 할 수가 없어요, 부탁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낸 분인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이사 선임할 때에 동일한 같은 자료를 받았습시다.

○**문병호 위원** 다른 분도 똑같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누가 부탁해서 했는지 답변하십시오, 여기서. 다른 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고영주 씨에 대해서도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모를 하신 분은 다 똑같은 서류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똑같은 서류를 냈는데 이런 식의 서류를 내 가지고 어떻게 이사 선임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재홍 부위원장님은 이번에는 인사 원칙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추천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당이 추천했다, 야당이 추천했다, 청와대가 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원래 공모를 하기 전에 이사 선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요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들이 본인이 판단하고 또는 상임위원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

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 알고 계셨지요? 선임하기 전에 알고 계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몰랐습니다.

○**문병호 위원** 회의석상에서 문제가 안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상임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보수적인 분이라는 이야기는 나왔습시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문병호 위원** 정말 대한민국의 방통위가 이런 수준이고 이런 정도의 한심한 업무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아니, KBS, MBC와 같은 그런 큰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장을 뽑는 절차가 그렇게 허술하고 기준도 없고 영터리로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뭘니까, 이게 도대체? 본인이 하겠다는 자기소개서도 없고 남이 추천한 것에도가 무슨 경력증명서 하나, 변호사 제직증명서 하나, 경력사 유확인서 하나 내고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절차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쪽 해 왔었고 그다음에……

○**문병호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는 누구의 추천으로 된 거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비밀투표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문병호 위원** 정말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이미 했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심사에서 거르지도 않습니까? 공식회의에서 그런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토론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이사 선임이 말이 되는 절차입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이사장이 되신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병호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아까 저는 제 직무에 관련해서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파적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오해를 하신다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문병호 위원** 사실만 얘기하십시오, 사실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 인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일반 무슨 사회적인 활동이나 특정 이념적 집단과 공동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다는 점을. 그런데 그것을 놓고 논의하거나 협의할 자리가 없었고요. 자리가 있었다면 저희는 한두 번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여권 위원들께서는 사전협의를 필요 없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왜 협의하느냐 하고 거부하는 자리였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르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들은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짜여진 명단을 가지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문병호 위원** 방통위원장님, 법에 방송의 전문성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여 선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그리고 명단 짤 때 위원장님께서 명단 짜서 초안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히세요,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우물우물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문병호 위원** 그러면 누가 짰습니까? 명단을 누가 짰어요?

아니, 추천된 사람이, 원서 제출된 사람이 훨씬 많았지 않습니다. 경쟁률 3 대 1 정도 됐지 않습니다. 2 대 1, 3 대 1 됐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누구 걸러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냐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상임위원들끼리 판단한 부분이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병호 위원** 아니, 그러면 방통위원장님은 허수아비입니까? 방통위원장은 뭐 하라고 계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병호 위원** 위원회에서 하지만 방통위원장님이 주재하시고 그 초안을 만들고 리드하는 자리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사 선임 절차가 다 무효입니다. 뭐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사 선임 절차가 돼서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과거의 선임 절차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병호 위원** 과거의 선임 절차하고 뭐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좀 소상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민병주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이면 그냥 진행……

○**민병주 위원** 아까 한 얘기 아니고요 다른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추천을 하기는 합시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상은 여권, 야권을 떠나서 방송통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 공영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재홍 부위원장님이 아직까지 부위원장 되신 지 하루밖에 되지 않으셔서 그러신지 여권에 대한 ‘여권 추천 위원들과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향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발언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6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소위 메카시의 광풍이 여기에 아주 몰아치고 있어요. 아무나 대고 여기저기,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에까지 확장해서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면 공산주의자다 또는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분이 저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게 메카시가 한국으로 '고카시'로 살아 돌아온 것인지 참 어이가 없는 지경이고 과연 이 회의를 해야 되는 문제……

○**위원장대리 박민식** 전병헌 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 하신다고……

○**전병헌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자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간에 위원들의 발언과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 초월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메카시의 광풍이 지금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회의 운영만큼은 소위 이성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께서 소위 여당 측 상임위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질의응답 답변에서 말이지요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는 분이 공영방송 최고책임자로 저렇게 딱 버티고 앉게 된 과정이 바로 여권 추천의 상임위원들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박민식** 자료 제출 좀……

○**전병헌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KBS, MBC 이사들 선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 회의 내용과 회의록과 속기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다음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제출을 하는데 인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늘 의결을 해서 열람의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아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전병헌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요청하신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저한테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민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광고매출 혜택이 지역방송에까지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CM순서 지정률하고 간접광고에서도 지방방송이 불이익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방송사 관계자들이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시행된 지역방송지원법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방송들이 고사 직전에 있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의 부산MBC와 KNN을 비롯한 지역방송 27개 사는 109억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방송지원법이 시행된 첫해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됐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미방위에서 그 예산을 100억 넘게 증액을 해 주셨는데 또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증액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런 지역방송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배전의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중앙방송의 경우에는 60분짜리

프로그램에 최소 3000만 원,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회당 1억 원을 초과 투입하고 있는데 지역 지상파는 60분짜리 프로그램에 회당 5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여건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방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부분은 광고주들이 판단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고주들이 중앙 지상파방송의 효과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낮게 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도리는 없는 것이고요……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 발효되었을 때 지역신문사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251억 원과 비교하면 지역방송사는 지나칠 정도로 지금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사 인기 프로그램 1회 이상의 제작지원금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당연히 풍부한 제작비가 투여가 되면 질 좋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덕광 위원**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법의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본사와 프로그램 경쟁이 가능할 규모의 최소 지원 비율 또는 금액을 명시한다거나 그 금액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어차피 각 당사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역방송사와 중앙지상파 사이에 광고판매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균발위의 심의를 거쳐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민방의 재정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방발기금 분납금의 납부를 유예해 주든지 감면해 주

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래서 올해 고시를 개정을 하면서 지역방송의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방발기금 징수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배덕광 위원** 마지막으로 방송위 조직도를 보니까 지역방송정책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역방송 전담이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직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과로 승격시키는 것을 지금 행사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그것도 보니까 팀원이 3명에 불과하던데 이래 가지고는 지역방송 발전에 지원이 가능하겠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팀원 3명으로는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정말 하기가 어렵다 또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를 방금 신설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조직 개편을 좀 해서 지역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역방송사도 그 지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신위원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렵게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방송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창 위원** 고영주 증인, 마이크 앞으로 해서 답변을 똑바로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공산주의 이념적인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제가 다른 걸 여쭙 보겠습니다.

5·16 있잖습니까? 박정희 당시 장군이었던 것, 이것 군사 혁명인가요 군사 쿠데타인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형식으로는 쿠데타라고……

○**송호창 위원** 똑바로 크게 얘기해 주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형식으로는 쿠데타로 보이지요.

○**송호창 위원** 그냥 증인의 생각이 됩니까? 이것 군사 혁명이예요, 쿠데타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형식은 쿠데타인데 정신적으로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송호창 위원** 정신적으로는 혁명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러면 전두환 12·12는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것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송호창 위원** 좌편향이 돼 있는 그 법원에서 결정 난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법원 전체가 좌편향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그 법원은 좌편향 안 돼 있는 법원이란 말씀이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쿠데타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런 것이지요.

○**송호창 위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법원 얘기하지 말고.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존중합니다, 법원 의견을.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말씀이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뭐가 다릅니까, 두 가지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하여튼……

○**송호창 위원**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다른 걸 얘기하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송호창 위원** 아니 5·16하고 12·12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세요? 모르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송호창 위원** 뭐가 다르냐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송호창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정신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우리 국민 1500만 명이 본 조정래 씨가 쓴 ‘태백산맥’이라는 책 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적 표현물이다, 이건 법 적용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법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송호창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이적 표현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러면 그 책을 보고 감동받은 1500만 명의 국민도 거기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겠네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럴까봐 이적 표현물이지만 이것은 수사는 안 하는 게 옳다, 제가 의견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송호창 위원**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확신하고 이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고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게 증인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지검에서 했던 수사사건이고 번데기 골뱅이 등의 통조림 제품을 만들 때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썼다 해 가지고 그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래 가지고 그 회사는 파산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창 위원** 그런데 무죄 나왔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송호창 위원** 증인이 기소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증인을 기소해 가지고 무죄받은 경우들이 얼마나 됩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임검사가 따로 있고……

○**송호창 위원** 많지 않아요? 하나씩 얘기를 해 볼까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말씀하시지요.

○**송호창** 위원 뒤의 다른 얘기를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것은 극단적인 것이라고 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상 여쭙봤을 때에도 상법상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때? 그렇게 있는지 처음 들었다고 그러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호창** 위원 취지가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얘기에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하신 적 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것은 교육부 산하의 분쟁조정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송호창** 위원 거기에 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거기서 김포대학 설립자인 아버지하고 그 아들 간에 서로 분쟁이 생겨 가지고 이사회, 총장 선임문제 이걸 가지고 분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정위원으로 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김포대학을 소송 수행을 했었지요? 소송대리를 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누구 대리를 했습니까? 아버지 쪽 대리를 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아버지……

○**송호창** 위원 1심·2심·3심까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 아버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송호창** 위원 아버지 쪽 대리를 했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버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셋째 형제하고 둘째하고 분쟁이 생긴 건데 나중에는 둘째 쪽을 대리를 하신 것이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것 변호사법 위반인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래서 지금 한

겨레……

○**송호창** 위원 알아요, 몰라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한겨레신문 기사를 고소해 놓고 있습니다.

○**송호창** 위원 아니, 아시느냐 모르시느냐는 얘기에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변호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송호창** 위원 변호사법 31조1항3호에 공무원 또는 중재 조정위원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다, 수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당연히 안 되지요.

○**송호창** 위원 당연히 안 된다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래서 지금 한겨레신문 기사가 고소돼 있습니다. 그 고소 결과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송호창**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주 증인이 저런 이념적인 극단적 편향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상의 수행…… 감사 직무를 할 때에도, 본인이 방문진의 감사를 할 때 방문진의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배임을 한 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있겠습니까?

2004년부터 올해까지 28번 법인카드를 가지고 임직원들이 면세점 기내에서 발렌타인이나 양주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800만 원 이상 이런 것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는데 당시에 증인이 감사로 있었습니다. 감사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방문진의 이사장으로 지금 임명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방통위에서 저런 분이 과거 발언…… 저런 발언을 했다거나 저런 행적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호창** 위원 그걸 당시에 모르셨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송호창**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신문에 보도된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저런 분인지 모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알았다면 임명을 그대로 했겠느냐 그렇게 여쭙보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 사상의 자유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방통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이 확인이 됐다면 저런 분을 어떻게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질의를 죽 할 때 도대체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고영주 증인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기사로 나온 것처럼 김기춘 실장이나…… 당시 청와대 실장하고 많이 잘 알고 그리고 만남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영주 증인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추천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선임할 당시에는 비서실장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호창 위원** 추천한 게 누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추천은 공모해서 서류를 보고 공모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임을 한 것이지……

○**송호창 위원** 추천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서류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성함은 잊었습니다마는 거기 추천서를 아까 읽어 주셨는데 추천을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요 조금 전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추천서를 읽으셨는데 그분이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민식** 송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대구 북구를 서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확인국감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방문진 이사장님, 오늘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사법부가 좌경화됐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

○**徐相箕 委員** 일부 맞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徐相箕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徐相箕 委員**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병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 같으면 큰 걱정을 안 합니다, 모두. 예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수술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고 결국은 사람이 죽어야 같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뭐든지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 점 걱정하고 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서 위원님,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계신 말씀이십니다.

(웃음소리)

○**徐相箕 委員** 그러면 사법부가 그렇다면……

발언하는 데 웃고 낄낄대고 그러지 마세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것?

○**이개호 위원** 위원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徐相箕 委員**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초선이 돼서 처음 와서 좋은 걸 배워야지 그런 것부터 먼저 배워요?

○**이개호 위원** 위원님 말씀에 웃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위원장대리 박민식** 진행하시지요. 서상기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徐相箕 委員** 조심하세요, 조심해!

○**위원장대리 박민식** 진행해 주십시오.

○**徐相箕 委員** 지금 언론계는 어떻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언론계도 걱정이 많습니다.

○**徐相箕 委員**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교육계도 걱정이 많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 면에서 아까 대남 적화전략

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맞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이왕 업무에 대한 질의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 또 그동안의 업적, 특히 또 아까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한테 할애된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박민식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여러 우려하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를 테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나 민중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애국진영이 하고 있는 것은 대남 적화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NL계라고 하고…… PD계가 인민 혁명을 우선하는 것과 달리 NL계는 주한미군 철수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인민혁명을 해야 되는데 인민혁명에 장애가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민정부가 수립되면 양쪽의 같은 성격의 인민 정부들끼리 연방제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입니다.

그래서 공안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적 동조라든지 처벌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남 적화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친북 반국가 인명사건의 선정기준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연방제 통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렇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아까 재판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 남았으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어떤 재판결과 말씀이십니까?

○**徐相箕 委員** 아까 기소해서, 아까 그것 제대로 답변 못하셨잖아요?

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제가 형사2부장을 할 때 저희 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고 저는 보고를 받고 나중에 발표하는 역할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미루자는 게 아니고, 그 사안의 성격을 보면 내부자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번데기를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것을 정상적으로 들여오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냉동을 해 가지고 들여오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포르말린으로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장장의 능력은 누가 그것을 값싼 포르말린으로 쉽게 방부 처리를 해서 들여오는가가 공장장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보가 돼서 그 검사가 나갔는데 나가기 직전에 그게 국회에서 먼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아마 그 증거물이, 그러니까 포르말린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치위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을 압수해다가 화학분석을 시켜 보니까 통조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생번데기에 있던 포르말린도 가열하고 그러면 포르말린이 없어지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번데기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없는데 제품화된 통조림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 이 정도면 포름알데히드로 방부 처리했다라는 것이 입증될 거라고 봐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견해가 달라 가지고 그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해서 국가에서 배상을 하고 그랬지만 결국 대검의 판단이, 이것은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지 이게 수사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이를테면 구상권 행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위원장 홍문종**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우상호 위원** 조금 전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야당 위원 일부가 웃은 것은 서상기 위원의 질의 때문이 아니라 방문진 이사장의 답변 내용이 우스꽝스러워서 웃은 것인데 본인의 질의

에 대해서 조롱한 것처럼 오해하셨다면 그것은 상황 자체가 전혀 잘못된 판단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사 그렇다 해도 조선의원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는 표현을 야당 위원에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넘어가시지요, 특별히 무슨……

○**우상호 위원** 나쁜 것부터 배웠다는 말은 할 수 없지요, 동료 위원에게……

○**위원장 홍문종** 특별히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넘어 가지지요.

○**우상호 위원** 아니, 특별히 지칭했어요. 웃으신 분이 한 분이었어요, 조선의원은.

○**위원장 홍문종**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넘어가십시다.

○**배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배덕광 위원님.

○**배덕광 위원** 우리 이개호 위원님이나 저나 조선의원인데 아마 서상기 선배님께서 특별하게 야당 위원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소의 인품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재 이 국감장이 남북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지금 국감장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이 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을 44년간 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님의 경우에도 보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또 이 나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정말, 국가에 헌신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남북분단의 비극을 서로 간에 양과 간에 갈려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 것만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서 고영주 이사장이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조선 국회의원이고 후배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방문진 이사장이 본연의 일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상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후반기 미방위 구성해서 여야 간에 단 한 번 이렇게 언성을 높

인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도 가능한 한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많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면서 왔습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오신 다음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 현직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거에 이야기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어쨌든 지금 여야가 같이 운영하는 것이 국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사실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데 수차례 기회를 드리고 정회를 해서 사과까지 하셨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찍은 사람들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공작을 모르고 찍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태도를 보고 저희가 해임안을 낼 거냐 말 거냐 논의하자고 분명히 여야 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잣대입니다. 문제인 당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것을 사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상호 위원** 아니, 형사소송 관련된 게 아니고 사과하실 의사가 있냐고요? 없으시지요, 형사소송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 또 사법부의 정의에 관한 문제지요.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되었고 김일성 장학생이 여전히 사법부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우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사학자 90%가 좌경화되었다는 말을 취소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우상호 위원** 이것은 인권의식에 관련된 건데

요, 과거에 부림사건 등 80년대 공안사건 관련하여 수사당국이 임의동행 방식으로 학생이나 혹은 민주인사를 불법적으로 연행한 그것이 불법은 아니고 편법적 관행이었다는 생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부림사건은 제가 그 과정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직접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관행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우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불법이냐?’ 그랬더니 ‘편법적 관행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저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다섯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 방문진 이사장님은 대단히 우리 사회의 극단적 판단과 편견의 소유자이고 인권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삼권분립 체제의 사법부를 능멸하며 정치권 전체를 신뢰도가 낮다고 조롱한 이런 당사자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으며 사회통합적 방송의 역할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는, 지키는 보도가 될 것입니까? 그래서 부적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생각을,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박정희·이승만 대통령이 애국자였다고 하는 생각만 설파하신다면 저희는 그분의 생각에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신과 사상을 지키는 것이 지나쳐서 야당대표와 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낙인찍고 모든 것을 진영의 논리로 분열적으로 바라보시는 저 판단에는 존중할 수 있는 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비상식적 언사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해임 촉구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여당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당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공영방송 이사가 되고 공직자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극좌와 극우의 양 극단을 배

제하고 합리적인 보수세력과 그리고 균형 잡힌 진보진영이 서로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 극단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역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분을 임명하시고 또 저분이 추천되도록 관여하신 집권세력과 여당에게 자신들도 저런 사람일지 몰랐다는 말을 사석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같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지금 공영방송 이사의 형식적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장이지만 이것이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위하여 여야가 일정하게 추천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오늘 위원장님이 왜 그것을 임명했냐고 당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관행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야가 임명하고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방통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원천결격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권리는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각 정당의 추천 몫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공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런 수준의 분들이 계속해서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EBS 같은 경우에 EBS에서 영구 퇴출된 출연자가 다시 이사로 들어오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사회에서 사퇴하신 분이 다시 이사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정말 방송 자체가 엉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 배타적 반대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수준의 필터링 정도의 권한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 고영주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공영방송인 MBC 방문진 이사장이 되시기보다는 공안문제연구소나 국정원으로 가시는 게 사실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유승희 위원 국정원장……

○우상호 위원 원장까지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조롱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의 회의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대개 공안 문제와 관련된 것은 대단히 소신이 있으세요, 방송 문제에 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지금 사퇴하시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옮기시거나 계속해서 이른바 그 애국진영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퇴 의사가 없으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앞으로 방문진 이사장 직책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고영주 이사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고영주 이사장님과 같은 시국관을 가져야 하나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물론 아닙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유승희 위원 그러면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고영주 이사장께서는 좌편에 속합니까, 우편에 속합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념적으로 우편에 속한다고 보고 있지요.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좌편에 있는 사람을 0으로 하고 가장 우편에 있는 사람을 10으로 했을 경우에 고영주 이사장님은 어느 편에 속하신다고 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한 7~8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 7~8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유승희 위원 그러면 9나 10에 해당하는 아주 극우적인 분들은 어떤 성향의 분들인가요? 그 부분은, 9나 10정도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은 편향돼 있기 때문에 7~8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9와 10에 있는 분들하고 7과 8 정도에 있는 우편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과격한 행동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요.

○유승희 위원 과격한 행동이라 하면 가장 우편에 계신 분들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유승희 위원 어떤 행동을 했지요, 가장 우편에 계신 분들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유승희 위원 현실에는 없고, 언제 있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폭력을 쓴다든지, 과거 해방 직후에 그런 식으로……

○유승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이 폭력을 썼지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워낙에 애국주의 진영에 계시니까 한번 여쭙 보는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주로 폭력은 좌익들이 많이 썼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한 세력들이 있었지요.

○유승희 위원 우익의 폭력은 정당한 거고 좌익의 폭력은 부당한 거고 이렇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지요.

○유승희 위원 폭력은 다 부당한 거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유승희 위원 그러면 어떤 우익의 폭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썽, 그 전에 좌익들이 경찰관 가족들을 학살하고 그럴 때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가장 우익의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조직이 주로 폭력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명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썽, 조직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유승희 위원 개별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유승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이를테면 좌익이 경찰관 가족들을 학살하고 그랬다, 그러면 나중에 와 가지고 일부 우익들이, 피해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좌익들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유승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9나 10 정도의 극단적 우익 편향주의자들은 없다는 거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사장님의 이념적 편향이 7~8 정도 되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념적 편향이라는 말씀은 좀 거북합니다.

○**유승희 위원** 우편향·좌편향으로 했을 경우에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7~8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방문진 이사장은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에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조인으로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국가관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저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사장님과 같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면 좌편향 쪽에 5가 딱 중앙이라고 한다면 4나 3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기관에 있어서 이사장이나 이런 자리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념이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유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지요.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행동으로만 안 나타나면 되는 거지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당연히 인정하지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좌우 대립, 이를테면 좌파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저만큼 관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언론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철거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저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민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잘하

셨다고 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유승희 위원** 그런데 유독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저희 당대표가 공산주의자다라든지 그다음에 전·현직 야당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내부에도 친북적인 인사가 있어서 인명사전에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매도하고 그다음에 낙인찍고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합리적이다라는 자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유승희 위원** 그런데 야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나 아니면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다 내지는 친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인을 찍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물론 한 사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공인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연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그것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자격을, 자질을,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유 위원님 같이 생각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승희 위원** 무슨 걱정이 없으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길래?

저는 이사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념적으로 극단화돼서 서로 대립하고, 극한적인 대립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약간 5에서 좌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5에서 6이나 7에 있는 사람들 빼고 다 똑같은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3이나 4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산주의다, 친북인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매도고 낙인을 찍는 거고 그런

행위가 어떻게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지식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게 나쁘다라고 건전하게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산주의 같으면, 공산주의자라고 지목받으면 이게 나쁜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다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사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인 것을 분명히 하라라고 교과부에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 9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사퇴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희 위원 아니,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글썸.....

○유승희 위원 길게 하실 필요 없다고요. 하실 필요 없고 지금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보충질의할게요.

그리고 우선 위원장님!

.....

○위원장 홍문종 예.

○유승희 위원 지금 고영주 이사장님의 너무 편향적인 시각 그리고 이사장으로서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모 일간지랑 지난 2일 국감 끝나자마자 인터뷰하시면서 ‘제가 검사 시절 지금의 야당 의원들처럼 피의자들을 다그쳤다면 살인자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사실입니까? 그러면 살인자라고.....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사건 조사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한마디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인터뷰, 인터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썸, 그러니까.....

○유승희 위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유승희 위원 살인자 운운하면서 얘기하셨냐고요.

그러면 야당 위원들이 살인자 같다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저를 고문검사라고 하니까 만일 ‘내가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높였으면 고문검사 아니라 살인검사라고 비난을 했을 거다, 운동권에서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얘기지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소리는 안 높이셔도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이고 실질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국정감사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수준으로 인터뷰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참 죄송하지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런 국정감사 모독과 국회 모독 발언의 수위로만 봐도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문종 위원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국정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홍문종 이것은 국정감사 끝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개호 위원 이개호 위원입니다.

우선 선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웃었다는 말씀, 저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또 초선 의원으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배덕광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초선 의원으로서 해야 될 본분과 자세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또 고영주 이사장님,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선배이신 고 이사장님이 사퇴하시면 좋겠다,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퇴하시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못 보셨다고 그러셨던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못 봤습니다.

○**이개호 위원** 내용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는 과거 발언은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뿐만 아니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법원이 좌경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민 누구나 부당하게 생각하는 판결을 비판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으로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그래서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체포—아마 부림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와 감금 사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이다,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소개를 해 드린 변호사회 성명 중에?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공안사건 수사의 실상을, 애로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이 판결만 정당한 판결이고 앞의 두 번은 잘못된 판결이다, 앞의 선배들은 이를테면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아서 그런 엉터리 판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실상을 제일 아는 분들이……

○**이개호 위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이 틀렸다 그 말씀이시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잘 몰라서…… 나쁠리아 있겠습니까?

○**이개호 위원** 몰라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분명히 이사장님 생각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이개호 위원**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

보 오늘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산주의자라고 지금도 확신을 하시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개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지난번 국감 때 분명히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때 옛날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개호 위원** 여기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산주의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말하는가요? 공산주의자의 명확한 생각하시는 의도나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거짓된 얘기고……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제 말씀에 그냥 맞다 다르다 말씀을 해주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뭐라고, 어느 부분 말씀……

○**이개호 위원**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결국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분이 대통령 출마를 하셨다는 말씀이 되네요, 결국은? 이사장님 말씀을 되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어서 친북인명사전, 소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국진영에서 발행한, 말간한 친북인명사전에 박원순 시장을 친북인사로……

친북인사지요, 친북인명사전이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친북 또는 반국가 행위를……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물 선정에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소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이개호 위원 결국은 친북인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장님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이개호 위원 친일인명사전 제작은 국민 분열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친북인사 인명사전, 소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애국진영의 숙원사업이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이개호 위원 오늘도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법시험 2차 합격자의 80%가, 10명 중 8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어떻게 부정을 했습니까?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말을 그대로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아니, 잠깐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국가적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느 쪽에 국가적 정통성이 있느냐……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 국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헌법에 나온 대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글썬, 그렇게 하면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개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면접이니까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질문인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글썬요, 형식적으로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부림사건 무죄선고를 한 대법원 판사들은 좌경화된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경이 무슨 범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이쪽을 좀 동조하는 사람이라

는 그런 뜻이지요.
○이개호 위원 이사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 스스로의 이념적 성향 그리고 가치관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극히 정상이지요.

○이개호 위원 방통위원장님, 보시면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신지 한번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성준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특정한 발언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친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면을 보았을 때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또 지금 일부 발언이 꼭 이사장 업무를 하는 데 바로 직접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것이 이사장으로서의 업무가 잘못되도록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위원입니다.

오늘 국감 방송에서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국감은 흡사 고영주 이사장 청문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방통위원장님이나 KBS 또 다른 분들이 상당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방금 방통위원장께서 답변한 것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일과를 했습니다마는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 역사관이나 철학, 고영주 이사장 개인의 그런 데 대해서 상당 부분 저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또 제가 기대하는 것은 고영주 이사장의 역사

관이 어떻다보다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방송의 어떤 공정성 또 공익성, 이런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님, 이번에 KBS 이사 또 방문진 이사진이 다 개편됐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박민식 위원** 아까 문제 제기를, 쉽게 말해서 방통위에서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방문진 이사가 지금 아홉 분이시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박민식 위원** 그런데 이사장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호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지금 자리 비우셨네. 우상호 간사가 지적한 것처럼 김재홍 부위원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진이든 또 방통위든 간에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다 아세요. 정치적인 그런 임명 방식이라는 생래적인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고영주 이사장 선임만 쫓아 이야기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인정합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 아홉 분 중에서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박민식 위원**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 중에서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8월 17일 날 기사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 의견보다. “이런 와중에 쓸쓸하게 자신들의 뭇을 챙긴 시민단체가 있다. 바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지요. 비판의 초점이 정부 여당의 무리한 이사 선임에 집중되다 보니 세간의 시선이 야당 쪽 인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기사는 읽어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박민식 위원** 제가 3페이지 아주 길게 썼는데

다 안 읽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당 이사 추천입니다. “선임 과정에 아주 졸속하고 민언련의 오만과 꼼수가 숨어 있다.”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평소에는 동지인 것처럼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잇속만은 확실하게 챙기는 양두구육의 민낯이 드러나 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박민식 위원** MBC 뉴스데스크 9월 1일자, 9월 2일자 뉴스는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으로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층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문제고, 그 방법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박민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그 아들 병역 비리,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일부에서 좀 의혹이 있다, 그런데 지금 김재홍 부위원장께서는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좀 나서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아니, 박원순 시장께서 나서야 한다는 것보다는 MBC로서는 언론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일반 국민 여론층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박원순 시장 측에서 그 아들은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의료진의 검진을 받아서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식 위원** 그러니까 잘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영국에 있으니까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더라도 다른 데도 아니고 공영방송 메인 뉴스에서 보도할 정도면 이것은 뉴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뭐 하러 가만히 방치를 해서 스스로 의혹을 자초하

느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지적을 하니까 지금 부위원장 말씀대로 박원순 시장 측에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저는 어느 쪽도 그 속내를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헤아려 짐작하건대 영국에 있는 그 아들인가 하는 분이 한 번 와서 다시 한 번 검진을 받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소된다 하는 확신이 서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위원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러나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후속 논란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 봅니다마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하여튼 좀 요약하면 쉬운 길이 있으면 빨리 귀국해서 논란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 병역 의혹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국감장이 아닙니까? 다른 매체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방송 중의 하나인 MBC……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입니다. 그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고 수준의 그런, 쉽게 말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언론이 어떻게 느낌을 가지겠어요? 저는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본 다른 매체, KBS든 또 SBS든 다른 종편이든 다른 일반 종이신문이든 간에 상당히 위축을 느끼고, 이것은 바로 언론에 대한 겁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글썄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도 고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MBC 뉴스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 신뢰도와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정치적 손실과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MBC 뉴스데스크의 신뢰가 매우 높을 때는 저는 고위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그 언론의 지적에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아닌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민식 위원 아니, 그러면 MBC 뉴스데스크를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김재홍 부위원장도 언론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데 그 뉴스데스크가 상식적으로 정말 정치적인 악의성이나 편향적인 보도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솔직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다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전개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민식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헌 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 당 소속의……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홍문종 의사진행……

○전병헌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께서 번번이 우리 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MBC가 아주 무거운 언론사로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그런 논거로 지금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민식 간사님께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칼럼을 한번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신체적 특이성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분야, 여러 명이 관여한 바뀌치기와 은폐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도모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의사들은 종종 의학적 도그마에 빠져 그 안에서 맴돈다.”라며 병역 의혹을 일축했는데 “바뀌치기 시나리오대로라면 소속 병원이 다른 방사선사와 의료 영상 전산 시스템 전문가, 수년째 디스크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바뀌치기 모델, 병역 비리 브로커 등이 지금까지 줄잡아 10명 가까이 개입했고, 그들은 일사분란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은 비정상적인 과정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는 근거가 없다라는 오늘 무거운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칼럼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지금 여기 고영주 이사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

여지는데요.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절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장병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저는 국회가 국감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첫째는 헌법과 특히 법률에 정해진 그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이 부담하는 어떤 세금의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혹시나 낭비나 유용이 나거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국감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진은 이 방문진법에 의해서 오로지 MBC의 공정한 방송과 그리고 MBC 경영이 적정을 이루는가, 딱 그것만을 보도록 만들어진 특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은 8월 2일 날 임명이 되어서 이번 국감이 우리 미방위에 처음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고영주 이사장이 바로 방문진에 부여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이번 국감의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히 했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고영주 이사장이 향후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을 했는데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MBC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 상임위 국감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8시 뉴스데스크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하면요, ‘국감 후반전 막말과 고성 속에서 현안 감사는 뒷전’이라는 제목으로 감사 위원들의 약간 격앙된 모습만을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고영주 이사장님, 이 보도 보셨나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봤습니다.

○**장병완 위원** 이게 공정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장병완 위원** 그러면 최성준 위원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감 후반전 막말과 고성 속 현안 감사는 뒷전’이라는 이 타이틀과 감사 위원들의 약간 격앙된 모습만을 편집을 해서 내보낸 이 방송이 균형 잡힌 방송이고 공정한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이나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응 그게 문제가……

○**장병완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업무를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참석한 우리 허원제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균형 잡힌 공정한 보도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허원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차관은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검열을 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장병완 위원** 법적 심의 결과로서 저기가 아니라 당시, 당일 날 현장에 참석해 있었던 방통위원으로서 그날의 국감에 대해서 균형 잡힌 보도나 이거지요.

현안 감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미방위가 국감을 하는 현안은 뭐였지요? 당시에 MBC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보도를 했다는 것하고 또 방문진 전임 이사장들이 해외출장이나 이런 데서 과도한 그리고 부적절한 출장비를 여러 가지 유용한 문제점, 제가 봐서 당연히 물어봤어야 할 질문,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영주 이사장은 우리 위원회에 첫 출석이였기 때문에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했던 건데, 그 자체가 우리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고영주 이사장이 부적합하다는 것만을 이야기를 했었던 건가요? 그랬어요?

우리가 현안 감사를 전혀, 국정감사 내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막말과 고성으로 하루 종일 일관했나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허원제** 제가 지금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장병완 위원** 본질적으로 우리가 방문진을 국

감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방문진의 기능이 뭐예요? 유일하게 MBC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감시·감독하는 것이 방문진의 역할이기 때문에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국감의 주제로 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인 그날 방문진 이사장의 잘못된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 그 부적정성을 지적한 것만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고 그런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 방통위가 지금 전혀 결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 아니에요. 아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했는지, 공정성을 유지했는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방송심의위원회에게 맡겨진 영역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장병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률적으로 방심위의 저기를 지금 위원장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날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사장께서 이사장으로 요구되는 자질을 확실히 보여 주셨고 또 이사장의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셨고 답변이 그렇게 진행됐다면 그 부분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일인데 이사장 본인이 부적절한 답변과 부적절한 태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관하다 보니까 국감도 잠시 파행이 이루어졌었고,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 그날의 전과 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MBC가 자사가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MBC 본인들이 공정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자기들을 깎아 세운다,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한 것, 이것 자체가 MBC가 공정성을 결여했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진다면 그것은 역으로 방문진 이사장만이 아니라 방통위원장으로, 방통위원으로서의 자격마저도 없는 거예요.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진의 문제 또 방문진과 MBC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응답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병완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고영주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법적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나 지금 이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 편파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 앞뒤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홍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9월 13일 EBS 이사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KBS·MBC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마무리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오늘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며칠 전에 얘기하고 이런 걸 보시면서 이사 선임이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도 전혀 없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00% 만족스러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지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절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오늘 오전에 제가 원안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체에서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잘 안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안위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든.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원안위조차 이렇게 권위가 없으면 국가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척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 MBC 보고 이제 다 받

으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뭐에 대해서……

○**홍의락 위원** MBC의 현안에 대해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업무보고 받았습시다.

○**홍의락 위원** 역사학자들 문제도 얘기하고 사법연수원생 문제도 얘기했는데 MBC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뭐 기자들 몇 프로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뭐의 몇 프로요?

○**홍의락 위원** 기자들의…… 사법연수원생도 80%, 역사학자도 90%가 문제 있다고 하셨는데 기자들은 몇십 프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90%, 80%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 싶어서 기자들도 평소에 보셨던 MBC에 대한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직 거기까지는……

○**홍의락 위원** 거기는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MBC 프로나 어떤 기자, 어떤 취재나 이런 부분에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기자회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터뷰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것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게이트키퍼가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의락 위원** 경영진에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네요, 방문진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를 테면 사규를 어긴다든지 기강을 흐트러뜨린다든지 그러면 경영진이 문책도 할 수……

○**홍의락 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오늘 봤는데 이게 좌편향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방문진 이사장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편성·제작에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못 하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홍의락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홍의락 위원** 나중에 경영진에 책임을 물으신다 이런……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어떻게 지난번 국감 때 제가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결격사유 확인서 한 장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좀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모에 응하신 분들의 신원이 또 막 당해 이렇게 다 알려지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통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방송 이사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에 허용을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질 경우에는 우리 국가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또 하나 정보통신심의규정의 공인 제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홍의락 위원 공인 제외,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사실 공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공인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어떤 범주로다가 죽 판별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용을 하려고 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 경우에 제삼자의 신고나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인의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개정을 강행하시려고 하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강행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아홉 분의 위원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합의제의 정신을 살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시는 게 맞지 대충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다는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무튼 신중하고 위원님의 염려대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또 방심위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면 지금 중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권고·주의,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린 게 많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많습습니다.

○홍의락 위원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런데 심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서 겁을 내지 않잖아요? 심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입장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항상, 그야말로 반성의 대상이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어떨 때는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홍의락 위원 동일한, 강력한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동일한 사유를 반복적으로 심의규정 위반하는 경우에도 계속 권고·주의고, 어떻게 1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단 한번도 경제적인 어떤 규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겁도 내지 않고. 이렇게 어떤 재승인을 한다 그러는데 탈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심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한 두 건이라도 권위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방송통신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규제를 하고 하는 입장이 되면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있어야 국가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방통위나 방심위나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뭐든지 정말 신뢰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권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권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위원님의 그 지적을 명심해서 제대로 된 권위를 세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이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위원장 홍문종 이사 선임 과정을 어떻게 이사 선임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먼저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명단 중에서 서류로 심사를 해서 상임위원들끼리 배수로, 예를 들어서 열한 분을 저희가 선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3배수 정도를, 꼭 3배수를 채우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분들을 우선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격사유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

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 1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격사유가 확인이 돼서 일부 배제되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비공식적이지만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서로 논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회의장에서 비공개로 비밀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한 사람이 이사 수만큼 투표를 해서 가장 다수를 얻은 분부터 차례대로 이사를 선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홍문종** 다섯 분이시지요, 투표하시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투표하실 때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투표하는 날짜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회의일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다 고지를 하고 서로 협의된 날짜를 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논의가 덜 됐다고 그래서 다시 또 기일을 연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날짜는 다 아시고 전원 다 참석하신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다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위원장 **홍문종** 그리고 이사장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사장 선임은 이사로 임명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사들끼리 호선으로 하십니다.

○위원장 **홍문종**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위원장 **홍문종** 권한이 있습니까, 방통위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저희로서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라는 일응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문종** 예.

○민병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홍문종** 자료 요청하시지요.

○민병주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이 제가 아까 선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죽 나오기는 했는데 누가 참석을 했는지 또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명단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위원들 참석 여부를 말씀하시는……

○민병주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문종** 예.

○전병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홍문종 위원장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데요. 위원회의 진행을 좀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1차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마치 고영주 이사와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 투표의 절차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심문을 해서 그렇게 종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김재홍 부위원장이나 또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KBS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원회라는 것이 천하가 다 아는 합의제기구입니다, 합의제기구. 독립제기구가 아니에요. 독립제는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고 위원장이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만 합의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사안들을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취지의 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가 3 대 2로 되어 있지요, 여당 추천위원 사실상 세 분, 그리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투표행위로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제기구의 근본을 어떤 측면에서는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임명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표결을 하면, 물론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친 뒤에 그 의사나 안건에 대해서 계속 끌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 어떤 시점에 가서는 표결이 불가피한 점도 있지요. 그렇게 표결을 했다고 한다면 야당 추천위원들이나 여기 방통위원들이 특별하게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를 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그리고 최소한의 검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로 밀어붙이

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5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4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과거 퇴행적인 인사들, 그리고 심각한 편견과 하자가 있는 인사들, 자질과 전문성의 심각한 결여가 되어 있는 인사들 방문진 이사로 선임하게 됐고 그리고 이사장으로 선출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홍문종** 아니, 저는 누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사를 선임했는지, 또 이사장은 어떻게 선임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지금 이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방통위원장님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지 이런 것을 여쭙 봤는데 그게 무슨 어떤 특별한 정파를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저녁시간을 좀 오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일정이 바빠서 오후 7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홍문종**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유승희 위원** 아니, 해임 권한이, 그러니까 해임을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해임 권한이 없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방문진 이사장이 호선제로 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사를 임명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사장은 따로 저희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호선을 이사와,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의제기구 아닙니까? 합의제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여당 뭉치고 야당 뭉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가 선임이 돼서, 결국 그렇지만 최종적인 임명은 방통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임에 대해서도 해임을 통보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통해서 해임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또 해임을 통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홍문종**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유승희 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위원장 홍문종** 저도 위원장으로 발언한 거고요. 이따……

○**유승희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위원장 홍문종** 하시고 싶으시면 이따 하시라고요.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지금 좀 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홍문종** 예, 이따가 해 주세요, 이따가.

○**유승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 아니, 잠깐 얘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해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해임 권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해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KBS 심태섭 이사의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해 가지고 당연퇴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 홍문종** 오후 7시에……

○**유승희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 얘기를 아까 임명 절차, 왜냐하면 지금 이 공영 이사장 문제 딱 걸려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위원장 홍문종** 저분들도 몇 시간 동안 저렇게 앉아 계세요.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되고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오후 7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우상호 위원** 오늘 지난번 여야 간에 방문진 감사 이후에 방문진 이사장이 부적격자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였고 또 해임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제출하자고 제안했을 때 당시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께서 방통위 확인국감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해 본 연후에 협의를 하자고 하셔서 오늘 확인국감 주질의에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드렸습시다만 아까 주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약속한 대로 여야 합의로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가 저런 극단적인 분들을 공영방송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즉 포진시켜서 뭔가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제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여야 간의 합의로 먼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부터 해임해서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협의 또 위원장님께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지금 간사님 안 계십니까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방문진 이사 9명을 형식상으로는 방통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토의하고 만장일치가

안 되면 표결로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표결이라기보다는 비밀 투표로……

○**조해진 위원** 실제로는 여야 정당에서 각 6명·3명씩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정당에서 추천하는……

○**조해진 위원** 정당이라기보다도 정파, 여에서 또 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여쪽 성향 있는 분 여섯 분, 야쪽 성향 있는 분 세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양쪽에 다, 양 진영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과거에도 반대 의견, 불가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절대 안 된다, 자격이 없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 그 의견으로 인해서 방통위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어느 한 쪽의 추천인사를 임명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그것은 인선에 관한 투표를 하기 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해진 위원** 과거에 사례가 있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논의는 사실 완전히 비공개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논의를 저희 위원들끼리 모여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 같이 회의장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 가지고 투표를 해서 다수 투표를 받은 분부터 이사로 선임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거꾸로 야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반대 진영에서 볼 때 도저히 이것은, 과거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특히 그런 일이 많았는데 도저히 자격이 안 된다고라고 의견이 제기될 때 그것을 무시하고 임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투표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해진 위원** 논리적으로는 그럴 텐데……

그런데 저는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야 정파가 자기 뿔이라고 해서 숫자까지 딱 정해져 있고, 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데 시행령도 아니고 규정도 없는데 암묵적으로 딱 숫자까지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추천하고, 추천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고 그런게 또 받아들여졌고,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상대 진영 추천후보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임명하지 말라, 해임하라 이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되고 끝이 안 됩니다.

○**조해진 위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위원 수의 부질없는 논란, 국민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서 임명이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모를 벌이는 것은 아예 제도를 다 정리해 놓고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 이사장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가장 걱정되는 건 뭡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우리 사회의 좌경화가 너무 진행이 돼 가지고 자칫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그게 걱정입니다.

○**조해진 위원** 북한의 실태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조해진 위원** 이런 상황에서 남북 양측의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남북한이 흔히 말하는 적화로 통일될 염려가 지금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위험성이 지금도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결국은 우리의 약점이 이를테면 종북세력의 존재, 그래서 잘못하면 다수결로 했을 때 전체가 적화쪽에 부화뇌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결국은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어느 쪽의 체제가 먼저 붕괴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해진 위원** 좌경이라고 하셨는데 좌경에는 북한의 세습 독재체제를 맹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조해진 위원** 또 자유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유물론적 사관도 있을 수가 있고,

단지 보수정권·보수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의미하시는 좌경의 주축이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종북세력의 축이 있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대개 이념전이라든지 사상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인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보수정권이 25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해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하시는 상황이 됐다고 보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19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전국 대학가에서 일제히 좌경 의식화 학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1989년에 전교조가 결정돼 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의식화 학습을 시작한 지가 벌써 25년이 다 돼 갑니다.

종북·좌익 세력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갈 각오까지 해 가면서 국민을 의식화시키는데 주력을 다해 왔는데 우리 보수라면 보수고 우익이라는 우익은 밑에서, 어린 세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수사를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의식화 학습을 받는다고 검찰에서 발표를 하니깐 전부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김일성을 존경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검찰이 용공조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엄청난 오해를 받아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25년 보수정권이나 보수진영이 그동안에 역할을 잘 못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전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주 노인네들만 애국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젊은 애국투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확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참 유치하고 그리고 측은합니다.

60년 전 냉전시대의 유물인 매카시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아무런 거리낌과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고 이사장의 논리는 이미 반세기 전의 낡아 빠진 고물 논리에 불과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소련도 망했고 중공도 이제 중국으로 바뀌어서 시장경제를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쿠바까지도 미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일하게 남은 이른바 공산 사회주의체제 하나가 북한인데 그 북한을 저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히 과대평가하고 오히려 지금 찬양 고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라는 정권이 도대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국민들도 제대로 배불리 먹이지 못하면서 남한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사법부에까지 김일성 장학생을 심었다라고 설파를 하는 저런 분들을 양산한 것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 이사장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하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세기 전의 낡은 고물상 논리를 가지고 60년 전에 있었던 60년대 매카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카시로 바뀌어 가지고서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까?

전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사법부가 김일성 장학생으로 상당히 꽂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서글프다라는,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그동안 표면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우 존중받는 지성인

으로서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방위의 여러 가지, 3대 현안이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상징되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시장의 정상화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단통법 시행 1년 결산으로 볼 때 단통법이 목적으로 했던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보다는 오히려 가계통신비는 일정하게 부담이 더 올라갔고 그리고 이동통신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부작용만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9월달에 소위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사실상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단말기자급제에 준하는 판매방식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제조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헌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통법의 사실상 1년 성과가 실패를 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또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자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권익보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 권익보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LG유플러스가 소위 이중장부와 그리고 불법보조금과 그리고 소위 편법요금고지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부 말씀하신 사실들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 LG유플러스만 '얼리 택스 프리(early tax free)'라는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LG유플러스가 SOFA 협정을 이용해서 이른바 조세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탈세를 했다라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다른 부처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병헌 위원 아울러서 LG유플러스가 통신 다 단계 판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그 조치로 인해서 밝혀진 것이 통신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오히려 일반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 식으로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문중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대기업의 윤리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엄중한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마지막으로 방송 공정성 문제인데 방송 공정성 문제는 시대를 착각해서 사시는 분을 공영방송의 책임자로 올려놓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도 우리 미방위가 보다 생산적이고 그리고 국민들 생활 문제를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국감을 물을 흘려놓고 혼탁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존경하는 우상호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반드시 해 임결의촉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지난번에 신대섭 KBS이사 해임을 했어요, 해임 조치를 했어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는데 당연퇴직으로 되어 있고……

○전병헌 위원 아니, 당연퇴직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전병헌 위원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해임 조치했다고 돼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그것을 취소한 판결도 당연퇴직을 전제로 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방통위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권이 저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발언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최성준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날 MMS를 활용해서 EBS 2TV 방송 서비스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위원 EBS는 2TV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똑같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많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BS 2TV가 방송을 시작한 지 8개월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지상파 가구나 케이블TV 가구 한 743만 가구를 제외하고는 시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업방송이 중심인 방송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공·교육·정부 채널 등 공익적 가치가 있는 채널에 대해서는 케이블TV 지역방송국들이 의무적으로 전송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포함해서 방통위가 IPTV나 유선방송사업자들과 재전송 협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동안 채널 배정 문제 때문에 IPTV에서 방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EBS와 IPTV 사이에 EBS2를 방송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11월부터는 방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무 재전송 문제는 지금 EBS2가 하고 있는 것이 시범 서비스고, 그것이 본 서비스로 가서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그 방송법에서 의무 재전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뒤야지만, 개정해 줘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국내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빼꼼’으로 유명한 RG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중국 최대 완구기업인 알파그

룹에 ‘빼꼼’ 원작이 700만 달러에 매각되었고, 그 외에 ‘또봇’ 등 우리의 대표적인 토종 캐릭터들이 잇따라 중국에 매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애니메이션이 이처럼 중국 자본에 흔들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영 권료가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업체들은 방영권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송사들도 나름의 예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 업체들이 중국으로 계속 토종 캐릭터를 매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자산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매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 대책은 필요하나 지금 현재 방영권료 문제는 아무래도 방송사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영권료가 지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국내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방송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전체 방송 시간 중에 애니메이션이 일정 이상 방송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제도적인 편성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상황을 좀 살펴서 그 애니메이션사업이 장래, 미래 먹거리사업인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문화부하고 같이 노력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다음에는 박성문 KOBACO 사장님,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총량제가 시행되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대행하는 KOBACO가 시장 안착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사별로 방송 편성 및 광고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또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광고총량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광고 혼잡도도 낮춰야 하는데 KOBACO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방송광고 물량이 확대되지 않고 지상파 인기 있는 프로그램만 광고가 집중되는 경우 지역방송의 자체 광고는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9월 달에 두세 차례 매체사 및 광고대행사들과 그런 협의를 했고요. 실제 총량제가 되면 막 광고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시행해 보니까 매체 방송사들은 대표적인 프로그램 한 곳에만, 광고를 많이 총량제만큼 냈을 때 사실은 광고 효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훼손도 있고 해서 실제 그렇게 광고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의 경우는 가장 인기 있는 ‘무한도전’에 광고 15초짜리 딱 2개만 할애하는 것으로 지금 총량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이 80분짜리기 때문에 현재 광고가 32개인데요, 총량제하면 또 5% 더할 수 있으면 광고가 16개 붙어서 사실 48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12분 동안 광고가 나가는데 그것은 소비자도 수용할 수 없고 매체사의 PD들도 수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15초짜리 딱 2개만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에 따라서 광고가 막 쏠리고, 지방사들이 어려움을…… 그런 문제점은 사실 시행 초기에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준 위원 정호준입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아까 제가 고영주 이사장님 해임을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방통위에 임명권은 있는데 해임권은 없다, 그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유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연주 사장은 “대통령에게는 임명권만 있지 해임권은 없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그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명은 통상 해임을 포함하

는 개념이며, 해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의 해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사법부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면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해임권도 방통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법적 근거를 좀 보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고영주 이사장님의 해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판결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견해가 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방통위가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한 실내외 위치정보 인프라 고도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그래서 2013년에는 7억 2000만 원, 2014년에는 8억 8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9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위치정보를 통한 구조 시스템이 112 경찰 시스템에만 제공되고, 119 소방 시스템에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고작 건당 30원인 위치정보 시스템의 이용료 부담과 아이디 발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는 그것하고 조금 사정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하나로 통괄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지금 19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같이 연동하는 규격을 만드는 데 우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소방본부마다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에 서로 시간적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통신사에 지불할 30원의 요금을 누가 어떻게 낼지 결정한답시고 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해 써야 할 시스템이 1년 가까이 반쪽짜리 운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랬으면 방통위가 119 소방과 또 통신사에 대한 협조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답니다.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 수십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만 건 조회가 있으면 30만 원이고, 10만 건이라도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위치정보 구축의 시급성을 얘기하시던 위원장님께서 좀 방치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참고로 30원은 방통위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동통신사가 받는……

○**정호준 위원** 물론 그렇지요.

또 와이파이 위치측위 시스템의 성공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8월 4만 여 건의 조회 중에 단지 325건, 0.8%만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서 같은 기간 통신사들의 성공률 4~15%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또 이는 가장 중요한 와이파이 위치 DB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백업 서버나 이중화 시스템 등 하드웨어 구축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산을 오르는데 제대로 된 지도도 없이 배낭하고 등산봉만 챙겨서 움직인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DB 구축 대상도 위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 다발지역으로서 선정하는 등 와이파이 위치측위 시스템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에 좀 대책이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기본 시스템은 다 완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모든 예산을 측위 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예산 심사 전까지 대책을 보고해 주실 수 있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고스톱게임이 누구나 이용하는 장소에서 광고가 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파트 승강기 내에, 미디어 보드라고 합니다. 승강기 타시면 액정으로 되어 가지고 광고가 나오고 그런 경우

가 있는데요. 송출되는 사행성 모사 게임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 보드는 옥외광고물이나 전광판방송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보드가 굉장히 보급화는 되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송출되는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방통위가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아마 저희가 담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하고 같이 하거나 그런 부분을 다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위원** 방심위원장님, 지난 8월 27일에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서 아프리카TV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한 여성 DJ에 대해서 이용정지 처분을 의결하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이 DJ의 경우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청소년 접근 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성 DJ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에 또 유튜브에 계속 방송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정지 처분이라는 게 가령 행정 처분을 받은 DJ가 아프리카에서 이용정지 처분을 받아도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시스템, 즉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유사한 방송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이들이 이용정지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DJ들도 계속

해서 다른 데서 사용도 하고,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아프리카TV의 경우 별풍선이라는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 시청자들이 사이버머니로 그 별풍선 하나당 100원에 구입해서 DJ에게 실시간으로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그냥 보기에다 문제가 있어 보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VJ들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받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야한 의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다반사이고요, 또 라면 국물로 세수를 한다든가 또 만두 12분 먹기 등 혐기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선정적이고 또 자극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또한 이용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를 통해 방송하거나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아프리카TV로 돌아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자체에서도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다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별풍선의 수익을 업체와 VJ가 서로 배분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적극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지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TV를 예전에는 잡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적극 모니터링을 활용을 해서 찾아내서 또 VJ들을 나름대로 징계도 하게끔 요구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에 저희들은 크게 공감을 하고 심의를 더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업체 자체의 어떤 자정노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방통위원장님, 어제는 더 기가 막힌 일

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인기 VJ가 아프리카 관계자에게 성을 상납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해당 방송은 방송 도중에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도 아프리카TV에서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에 일어난 일인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처음 들었습니다.

○류지영 위원 처음 들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인터넷방송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영향력도 크고 또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단순히 보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대책 마련에 힘을 써 주시고요, 또 방송위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과 방심위원장님 각각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방심위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방심위원장님, 어젯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보고 참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신고를 해 올 시에는 아주 엄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철저히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고영주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지난번에 ‘친일인명사전이 분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최민희 위원 그러면 친일파 청산에도 반대하십니까?

짧게 좀……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친일파 문제는 이제 세대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지금 친일파 청산을 다시 하는 것, 반대한다 이 뜻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금 그것 가지고 논란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

○최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친북 갖고 논란 벌일 때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북한은 당장의 위협이고 일본은 당장의 위협이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이……

○최민희 위원 지금 무슨……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구해 드릴게요.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이 돌연 고영주 전 공안 검사로 인하여 색깔론 논쟁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2015년을 사는데 고영주 이사장을 보낸 배후에 계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저런 이념적, 마녀 사냥적 사고를 하는 분을 보냈을까요? 불현듯 그게 친일 원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다들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영주 전 검사가 갖고 있는 이념적 색채 발언에 대해서 동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문진 이사장에 맞지도 않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민주주의에 투철하며 시민정신에 대한 신뢰가 강했던 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제가 통신사, 이통사 리베이트하고 제조사 리베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혹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봤습니다.

○**최민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단통법 시행 이후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제조사는 9개월간 8000억, 이통 3사는 2조 271억 원, 합하면 이게 1년으로 환산하니깐 거의 4억이 되더라고요.

이 자료 혹시 그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형태로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자료제출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제출 받은 것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최민희 위원** 아니, 저는 안 주신 것을 타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조사도 이통사도 공개를 꺼렸습니다. 저희가 아주 어렵게 구했는데 그 이유가 드러난 거지요. 천문학적 액수 아닙니까, 4조 원이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유통점이……

○**최민희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말씀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리베이트 액수가 일단 4조 원이다, 놀랍지요. 국민들도 놀랐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현재 이 통신 유통구조, 단말기 유통구조가 너무 왜곡돼서 이 리베이트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게 비정상 시장인 건 맞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판매점에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민희 위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매점 수수료를 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줍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서 주는 게 맞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은 그냥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비정상 구조입니다.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베이트가 불법이라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불법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리베이트가 정상이냐, 시장에 순기능을 하나, 아

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쟁해야 되고 패이백 문제가 되면 거기부터 또 불법행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점은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통신료의 6~7%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판매점은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판매점은 리베이트로 먹고살아요. 이것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제 말은.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리베이트를 공개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왜곡됐는데 리베이트를 공개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장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만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건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판매점들이 수수료 못 받지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로 먹고살게 할 거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계속된 갑을의 사슬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통신사나 제조사는 대리점을, 대리점은 또 판매점을 리베이트로 읊아매고, 제일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일에 종사하는 건 영세 판매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리베이트 공개를 계기로 방통위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통법은 일부 호갱님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고 일부 호갱이 일부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자료 공개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 국민이 호갱화되고 있는 게 수치로서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치로서 드러나서 단통법 실시 이후 일부 호갱은 줄었으나 국민 다수가 호갱화되고 있단 비판이 있는 것 아시지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통신사의 수익이 ARPU 따져 보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ARPU 약간 증가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단통법을 폐지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애초 단통법을 발의할 때 있었던 분리공시부터라도 해서 애초 취지를 좀 달성해 보자는 겁니다. 일부 호갱 없애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신비 낮추고 단말기 값 낮추자는 거였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분리공시 문제부터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높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즉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소비자한테 큰 이익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분리공시 부분은 그걸 통해 가지고 과연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또 시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있어서 너무 큰 변화를 주게 됐을 때에는 또 다른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통위원장님!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할부 관련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할부 수수료는 각 이동사마다 일정 비율로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할부 수수료가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단말기 구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선택약정할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 할부 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한 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요금제도가 복잡하고 또 일반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요금제도가 복잡해서 선택하기 곤란하면 안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도 할부 요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말기 할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해 주시고요. 각 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미래부하고 같이 청구서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할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의 김재홍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오전에 발언하실 때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이런 답변하신 적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방통위 위원장님도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회의록도 받아 보니까 티타임은 비공개라 누구누구 참석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선정할 때 그리고 이사 및 감사 선임할 때 이때는 회의록이 있어서 참석위원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 봤더니 다 참석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마치 참석하지 않고 몰래 이런 회의가 진행된 것 같은 뉘앙스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 회의록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전에 인선을 협의하기 위

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정식, 공식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기 위해서 양 진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위원, 야권 위원 평소에는 그렇게 나눠서 저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할 때에는 정부 여당 측이 방문진 이사의 경우에 6명의 후보, 야당 측이 3명의 후보를 가지고 논의하자, 협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권, 야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요. 정식 회의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하자 하는 요구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입장만 들었고 협의 자체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는 데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 회의는……

○**민병주 위원** 그 말씀은 일단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공모기간이 2주 동안 있고요, 상임위원별 개별 심사가 있어서 그때 티타임이 있었어요, 7월 15일. 여기는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석 안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결정하기 상당히 전에 준비하는……

○**민병주 위원** 이게 결정하기 전에 티타임에 참석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티타임은 사전 협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증언 전서했습니다.

○**민병주 위원** 예, 전서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티타임을 7월 15일 날 하셨어요.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티타임이 있었고, 이 티타임이 비공식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티타임을 한다는 것은 사전 협의를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무런 사전 협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티타임이 여러 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EBS 이사 선임할 때도 티타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전 협의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방통위원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최종투표를 하는 회의 이전에 위원님들 다 모여서 사전 협의를 당연히 했습니다. 지금 아마도 김재홍 위원께서 사전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투표를 하기 전에 아홉 사람의 명단을 내놓고 이 사람 중에 누구는 어떠한, 누구는 어떠한 이런 이야기 절차를 안 거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절차는 거처기가 상당히 힘들습니다. 힘들고, 그전에 소위 소문이 돌면 이런 분은 이러저러해서 불가하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논의는 그전에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두 번 이상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오늘 방문진 이사장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또 나름대로의 회의를 갖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영주 이사장님의 추천서와 성명서를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은 좌경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내전 중이고 미디어 속에서 생각을 장악하는 심리전·사상전·문화전·미디어전을 해야 되고 그 핵심이 공영방송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부 모아 보면 이런 좌경세력이 장악한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좌경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됐고 그런 것에 가장 적절한 후보가 지금 고 이사장님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다 모아 보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사장님과 대화를 하다 느낀 게 좌경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공산주의자, 좌경으로 확실히 하려면 합리적인 근거 그다음에 적절한 수사 그리고 공정한 재판 속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그래도 20여 년간 법조인 속에서 경험으로 겪은 건데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리 사회 대부분, 사법부·언론계·학

게 대부분이 좌경으로 물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애국진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워 왔다라고, 저는 일정 부분은 그런 올바른 부분도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역사적으로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사상을 용인하고 그 속에서 사상과 표현을 경쟁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해 왔던 그 역사적인 경력을 보면 오히려 극단에 극단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협할 위험성이 다분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림사건에 있어서도 불법구금과 무리한 여러 수사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담당자로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회한과 어떤 나름대로의 반성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 사상전과 좌익척결의 전쟁을 시작하시려는 의도가 아닌지, 이런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사회통합, 그리고 진정한 여러 통합의 정신이 방통위원회부터 무너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OBS 광고 결합판매 지원 비율에 관해서 연구용역이 나와서 제가 그것 좀 제대로 반영해 달라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디어크리에이트 재허가 시 OBS 광고판매 추가 지원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겠다고 해서 그 이행계획을 보니까 최소 지원 비율이 95%예요. 그런데 다른 민방은 97%이기 때문에 실제로 OBS 지원 방향은 2010년 8.6억 원에 불과해서 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연구용역에서 자체제작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고 알고 있는데 방통위가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OBS는 지역민방이지만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특히 OBS는 지상파지만 재송신료나 프로그램 사용료 1원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

기 때문에 미래부와 공동으로 지상파방송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송신료 산정을 중재할 때 지원책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 분류기준을 개편해서 지금 사업규모로 보나 시장지배력이 상이한 OBS나 SBS를 같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동일하게 규제하지 마시고 네트워크 지상파방송과 비네트워크 지상파방송으로 분류해서 역외재송신, 소유, 편성 규제완화 등을 약간 차이를 두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바람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불륜조장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은 강력한 폐쇄 의지를 보였었는데 기억하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배덕광 위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배 위원님께서도 크게 걱정을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에 크게 공감을 해서,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게 청유물,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여가부에 문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민법상의 문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간통 조장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배 위원님께서 그런 법안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진정성도 보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그

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간통 조장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사실상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배덕광 위원** 국감에서 본 위원이 애슬리 메디슨 사이트와 함께 국내사이트도 심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것은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배덕광 위원** 그래서 ‘기혼자도 외롭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기혼자닷컴과 같이 기혼자 연결사이트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 가지고 현재 국내에 약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기혼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한 10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형태는 애슬리 메디슨과 거의 유사합니다. 성인인증도 없이 익명으로 남성은 5만 원에 2주 이용권을 구입해야 가능하고 여성 대부분은 남성에게 대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배덕광 위원** 애슬리 메디슨과 같은 해외사이트와 달리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42조에 의해서 제재 조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배덕광 위원** 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셔서 저희들이 특히 기혼자닷컴, 사실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도 애슬리 메디슨보다는 조금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라든지 이런 유의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어쨌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중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국내의 기혼자닷컴 이것만 가지고 청유물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해외사이트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한 언론사는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함정수사, 유도수사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입해 확인하는 길 말고는 불법행위를 포착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사실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만 개인과 개인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접근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배덕광 위원**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실에서 직원들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국감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불륜 조장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지난 3월 온라인상에서의 불륜 조장과 성매매 알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위원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정말 저희들로서는 아주, 목마른 사슴이 강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애슬리 메디슨을 제재를 하려고 해도 거기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고립무원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법안이 꼭 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에게도 큰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덕광 위원** 대한민국이 바람공화국이 안 되도록 위원장님의 특별한 관심 또 행정에 대한, 직원들과 그런 많은 열정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오늘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들어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응모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각자……

○**문병호 위원** 공개회의에서 사람 하나 놓고 각자 의견, 토론하는 게 그게 심사지, 무슨 상임위원 개인이 뒤에서 밑실에서 하는 게 무슨 심사입니까, 그게? 정말 한심한 업무를 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각자 심사를 해서 그것을 합쳐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문병호 위원** 각자 심사는 무슨 각자 심사입니까, 심사라는 것은 공론화해 가지고 여러 사람 의견 듣는 게 심사지 어떻게 각자 심사를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각자 심사를 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병호 위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영주 이사장님, 누구의 부탁을 받고 여기 응모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 측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승낙해 달라고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로부터 받고 여권이냐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일체 제의를 안 받았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 본 적도 없고 하고 싶다는 말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허원제 상임이사님, 여당으로부터 추천명단 받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허원제**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문병호 위원** 여당으로부터 추천명단 안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허원제** 그런 적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허원제**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방통위원장님도 받은 적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것 다들 증언하시는 데 다 사실대로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방통위에 분명히 이사의 선임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합의제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 선임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각자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문제가 된 사람은 걸러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상임위원 개인이 혼자 심사해 가지고 이사를 선출하니깐 이런 돌발사고가 난 거예요.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가 된 것 이것 돌발사고입니다, 돌발사고. 어떻게 저런 분이 이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공론화되고 충분한 토론이 됐다면 될 수가 없는 분이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위원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협의 없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문병호 위원** 제가 추측컨대 상임위원 누구는 A라는 분을 하기로 하고 상임위원 다른 분은 B라는 사람을 하기로 하고, ‘나 A 할게 너 B 해라’라고 해서 서로 했다는 것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A를 놓고 서로가 토론해서 ‘이 사람 적격자다’라고 해서 오케이하고 어떤 사람은 또 B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 안 된다’라고 해서 거르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아니고 각자 상임위원이 한 사람씩 차고, 각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서로 분배해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 선정 절차 아닙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호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얘기 들어보니까 뻔히 그런 건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선임하는 절차가 과거에 즉 선임했던 절차와 바뀐 것도 없고 그다음에 각 위원들이 우선 개별적으로……

○**문병호 위원** 아니,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뭐니까? 결격사유확인서, 검사경력서, 변호사 재직증명서 이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사가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제출서류는 그

런 것이고 그다음에 각, 저희를 비롯한 위원들이 각자에 대해서……

○**문병호 위원** 고영주 이사장은 누가 추천했어 요? 어느 상임위원이 추천했습니까? 어느 상임위원이 추천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추천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방문진 같 으면 아홉 사람이면 3배수를 각 위원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27명 이내로 추천을 해 가지 고……

○**문병호 위원** 3배수를 누가 추천했어요? 고영주 이사장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상임위원이고 어느 위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니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자 3배수 범위 내로 추천을 해 가지고 공통되는 부분을 뽑아서 결격사유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인사에 관해서 기본적인 토론이 안 됐다는 겁니다.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결격사유 안 되는 것, 결격사유라는 게 뭡니까? 전과 없고 정당 가입한 것 아니고 그것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무슨 놈의 토론 절차고 그게 무슨 합의제 기관에 걸맞은 절차입니까?

순 밀실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장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방통위가 최소한도 필터링 역할을 해야지 아무런 필터링 역할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는 저는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KBS 이사, 방문진 이사를 선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 밀실에서 하고, 나눠먹기 하고, 필터링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상대방이 추천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창 위원** 이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증인, 아까 사업분쟁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김포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에 참조하고 중재·조정을 했던 사건인데 조정위원을 마치고

난 이후에 김포대학 쪽의 한쪽을 대리했다, 법률수임을 했다 하는 걸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소장에 고영주 증인이 한겨레신문 기사를 고소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의 사분위 재임 중에 취급한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선임을 하지 않는 등 엄정하게 처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 당시에 김포대학에 대해서 조정위원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을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나중에 보니까 임시이사……

○**송호창 위원** 아니, 이 사건 수임을 할 때 그때는 모르고 하신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그때는 몰랐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분위 회의록 하나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43차 사업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15쪽에 나오는 거고.

거기 보면 ‘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지대 이사 정수를 무조건 정이사로 뽑는다’, 여기에 고 씨가 1명밖에 없어요.

고영주 위원 맞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송호창 위원** 본인이 여기에서 지금 이사선임 방법에 대해서 김포대학의 이사선임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지 정이사 문제, 임시 개방이사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기억이 안 납니다.

○**송호창 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것 조정을 다 하셨어요? 고 위원이 제안을 한 방법으로 해서 그전에는 사분위에서 정이사 5명만 선임하기로 돼 있던 것을 증인이 여기에다 제안을 해 가지고, 정이사 5명이 아니라 이사 전체 7명을 다 사분위가 지정하는 걸로 하자 제안을 해서 김포대학이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나중에 얘기를……

○**송호창 위원** 그것 지금 몰라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나중에……
 ○**송호창 위원** 그런데 왜 고소장에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선임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전혀 실수 안 하고 다 했는데’……
 왜 사분위에서 다뤘던 문제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상호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호창 위원** 아니, 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학을 다뤘는데 관여를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저것은 정상화돼 있는 상태에서 임시이사로……
 ○**송호창 위원** 아니, 정상화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김포대학이 이런 사업분쟁, 아까 얘기한 대로 설립자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쪽을 따르는 둘째하고 셋째하고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 사건이 다뤄질 때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건 맞잖아요, 김포대학?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해 봤습니다.
 ○**송호창 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증인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고소를 해 봤기 때문에……
 ○**송호창 위원** 증인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증인이 고소한 것은 무고행위예요, 무고죄.
 변호사법 위법이 명백한데,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법 31조에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이 자기가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수입하게 되면 거기에 벌칙조항이 있지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증인이 명확하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취급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송호창 위원** 아니, 분쟁조정위원으로 이사선임 문제를 다뤘는데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아니,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있

으면 고소가 될 것이고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송호창 위원** 증인, 질문에 답을 하세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말씀하세요.
 ○**송호창 위원** 항변하는 것은 검찰에 가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검찰에 가서 진술하시고 여기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혐의로 지금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호창 위원** 아무튼 지금 상법상의 감사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시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문진 감사로 있을 때 방문진의 임직원이 횡령행위를 한 것,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예요. 그런데 상법상 이사·감사의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변호사법에 이런 게 있는지 아시겠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조정에 관여했던 김포대학을 또 변론까지 해요. 이것은 파렴치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관리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송호창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은 나중에 검찰에 가서서 진술하시는 걸로 하고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호창 위원** 어쨌든 지금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속기록에,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 위원이 여기서 무슨 발언을 했고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찰에 가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송호창 위원** 방심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게 5일 날 했던 SBS 힐링캠프 이승환 씨 편에 나온 것 중에 친구들 해서 ‘강동모임’에 류승완 영화감독, 강풀 작가, 주진우 기자, 김제동 씨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와서 주변에서 이때까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든다, 이승환 씨와 친분관계 얘기를 쭉 다 했는데 주진우만 완전히 통으로 편집됐습니다,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이승환 씨가 도대체 주진우가 나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있나 보다 하는 항의성 글을 올리는 정도로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주진우의 발언 내용의 뭐가 문제가 돼서 통으로 편집된 건지 그 발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시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발언 내용 그것은 MBC에서 해야 되는 것……

○**송호창 위원** MBC가 아니고 SBS예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암튼 제가 알아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힐링캠프 주진우의 발언 내용을 전체 발언 내용하고 편집된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제가 하여튼 SBS에 연락을 해서 그런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최대한 빨리 국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위원님!

○**박민식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오늘 쉽게 말해 ‘고영주 국감이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뜨거운 감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서적으로 하면 솔직히 아주 정파적인 중립성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인물을 이사로 선임해야 되는 게 맞지요.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가 보더라도 합의제 기관,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대한민국 정치라는 토양 위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고려하고, 추천할 때 여당쪽에서 또 야당쪽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방송통신위원회 말고 많이 있어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예컨대 특정한 이사가 또 특정 이사장이 도저히 나 마음에 안 든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 다 양해한 정치현

실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쉽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한 선임 절차나, 또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사들 중에서 야당 추천도 있고 여당 추천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 중에서 호선한 분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현재까지. 우리 정치 수준의 한계지요.

고영주 이사장님 때문에 참 중요한 게 많이 빠져서, KBS 부사장님 나오셨고……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민식 위원** 방통위원장님한테 먼저……

저는 19대 국회가 마무리 시점인데 정말 우리 미방위에서 이번만큼은 KBS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 이것은 진짜 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관 출신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민식 위원** 제가 어제 KBS 국감 가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너무 구구절절하게 써 놨어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방송 공정성이 문제다, 국민 신뢰도가 문제다, 그러니 KBS수신료 현실화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요. 이 논리는 제가 미방위 처음 온 날에도 그대로 발언한 겁니다.

이게 2008년 2월 22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속 기록이에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 야당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 여기 계셨던 분들이 똑같이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아닌 거지요. 논리는 똑같다니까요. 제가 특정 위원님들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방송 공정성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 원리 중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언론의 자유고 국민의 알권리예요. 그것 때문에 공영방송을 한 것이지요. 국영방송을 하지 않고 민영방송을 하

지 않고,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삼성·현대한테 돈 내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국가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공영방송으로 했냐고요. KBS 수신료의 법적인 근거가 여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다 나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것은 내가 싫어서, 지금 방송 공정성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니까 해주기 싫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싫어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송 공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 해 줘야 된다, 어찌 보면 그런 논리가 맞다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어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지적을 하자고 치면 자꾸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바로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신료가 정상화되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민식 위원 그렇습니다.

진짜 공영방송 위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또 과거에 여당이 이렇게 했어, 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10년 20년 후 그때 가서 방송 공정성, 방송 공정성 하면 어제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방송 공정했습니까? 택도 없지요, 지금 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왜 수신료가 그때하고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KBS 쪽에서도 그렇고 방통위 쪽에서도 그렇고 헌법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체입니다. 그런 자세로 좀 임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어찌 되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앞으로 하여간 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오늘까지 고생하신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님도 어제 생태계 말씀을 하셨는데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퇴임사 비슷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회상임위원 허원제 박민식 간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까지 부위원장 소임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상임위원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대 국회에는 오늘로서 제가 여기 국회가 자리에 출석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박 간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 나름대로 KBS 수신료 부분에 관해서만 국한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KBS 국감에서 잠시 말씀은 올렸습니다마는 핵심은 지난 34년 동안 정체된 KBS 수신료 동결이 이제는 다매체·다채널 시대 그리고 인터넷·모바일 시대 그리고 다가오는 UHD 시대를 맞아서 방송 생태계를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에 걸쳐서 방송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 현재는 방송통신위원으로서 경력을 토대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방송 생태계의 복원과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 KBS 수신료 인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계는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재원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KBS의 시청료입니다. 그리고 광고, 유료방송의 수신료, 콘텐츠 사용료, 협찬 등입니다. 34년 동안 KBS 시청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발목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방송계에는 그동안 수많은 사업자들이 새로이 탄생해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케이블방송에 이어서 위성방송 그리고 최근에는 IPTV와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 방송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300여 개의 PP와 특히 4개의 종합편성 PP와 2개의 보도 PP가 방송시장에 경쟁자로 뛰어 들었습니다.

이렇듯 20여 년 전만 해도 지상파 4개 방송사만 존재하던 때에 비해서 이제는 SO와 위성방송, IPTV, 모바일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사업자와 수백 개의 PP가 방송시장에 새로이 뛰어 들으로써 방송시장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지독한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방송사업자들의 생존을 담보할 재원의 부족 상태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전송료 법정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방송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광고 재원을 벌충하기 위해서 협찬을 확충하는 데 혈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찬의 부조리와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협찬에 대한 과도한 방송사들의 집착은 바로 방송 생태계가 이미 무너져 재원 확보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결국 앞서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KBS 시청료와 광고, 유료방송 수신료, 콘텐츠 사용료, 협찬 중 재원의 확충이 지금 가능한 것은 KBS 시청료와 유료방송 수신료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34년 동안 손발이 묶인 KBS 시청료를 방송 생태계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 주셔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송은 한류의 원천이고, 뿌리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상파는 한류 확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콘텐츠의 생산기지이자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런 지상파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 UHD 시대에도 지상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 아래 주파수 문제도 국회에서 중재 역할을 훌륭히 해 주셨습니다.

UHD 시대를 제대로 주도해 나가려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UHD 콘텐츠 생산을 위한 새로운 투자와 예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신료 정상화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KBS 수신료 인상은 광고시장의 경쟁을 완화시켜서 수많은 PP와 플랫폼사업자들의 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UHD 시대에도 전 세계 방송시장을 주도하고 한류 확산을 펼쳐 나가면서 반드시 KBS 시청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방송계의 현실과 미래 전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면 다소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께서도 흔쾌히 수신료 정상화에 동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위원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발언하기 전에 부위원장으로 오래 수고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은 제가 양해하는데 연설문처럼 준비하셔서 공청회 하듯이 혼자서 10분씩 발언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지적하고요.

자, 한 가지 고영주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여야 간에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ICT 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하는 범국가적 합의가 있습니다. 어제 KBS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단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NHK 등 지상파와 소니, 캐논 등 제조사 21개 사가 협력하는 차세대방송추진포럼을 구성해서 UHD 전용 채널 '4K'를 계획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수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방송장비, 제조사, 영상 콘텐츠제작사, 송출·수신 장비, 시청자가 모두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IOC하고 직접 협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래부 등 관계산업과 부처 간의 협의 채널을, TF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원래 본질의 다른 것 하려고 그랬는데 길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인상하면 방송 생태계의 모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수신료는 박민식 위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있는 방송법 몇 개만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것입니다.

특별다수제, 그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전 종편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 방송 공정성을 담

보할 제도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생태계로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방송 생태계에 새로운 영향을 줄 때 처음 규제 방법이라든가 이익 배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이 산업, 그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룰을 정해 줘야 됩니다. 시장이 정글처럼 변한 다음에는 뒤늦게 규제를 도입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 방송·통신 융합 생태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결합상품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핸드폰, 인터넷, IPTV, 케이블을 동시에 묶어서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어디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하면 기기 제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익이 남는 분야에 집중해서 사실은 방송산업 같이 취약한 분야의 마진율이 제일 최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결합상품을 허용할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시장의 규율을 정하지 않으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인데 그게 수신료 인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상파가 어려워지니까 수신료 인상해 줘야 한다는 것, 저희 동의합니다, 공영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위기가 또 하나 옵니다. UHD TV가 도입되면 직접 수신율이 50%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난시청지역에서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지상파를 수신하던 가구의 상당수가 케이블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SO의 위험이 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SO는 핸드폰 등 다른 상품에 끼워 넣기 상품으로 전략한 상태에서 UHD TV까지 도입되면 설 땅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규제 또 풀어 줘야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시장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맞추는 규제 체계를 미리미리 연구하지 않으신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못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수신료 인상은 지금 열악한 지상파의 재원을 일부 보전해 주는 측면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 자체의 정글화를 막는 유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지 않으신다면 또 임시미봉책에…… 당장 급하니까 KBS 수신료 올려주고, 그 여유분의 광고를 다른 지상파에 나눠주는 수준의 선심 정책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방송시장 정책, 방송활성화 정책, 콘텐츠활성화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지만 시장조사 한 번 안하시고,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안하세요. 2년, 3년, 4년 후에 UHD TV 바로 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로지 수신료 올려 주지 않는 야당 탓만 하실 거예요?

저는 정책 담당자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송·통신 융합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만 만들어 주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셨던 방송계 관계자들과 방송협회 사람들 지금 다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수신료 인상환원주의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을, 물론 공정성 문제는 야당이 주장합니다마는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콘텐츠를 만드는 지상파, 콘텐츠를 만드는 외주 제작사, 콘텐츠를 공급하는 PP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지 않은 지상파도 책임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야당도 방송 공정성 제도개선만 이루어진다면 이번 국회에서, 제가 내걸고 있는 것이 바로 물가연동제, 물가인상분에 준해서 연동해 주고 적정한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이상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동안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하면서 올려 주지 않았던 이 사슬을 끊어야 되고요. 그것은 제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편이 되면 공정성을 좀 훼손해도 봐 주고, 벌써 20년째 이러면서 서로 핑퐁게임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끊자는 겁니다.

공정성보장제도 몇 가지만 정리해 주면 더 이상 수신료 가지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하고 KBS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자, 오히려 제가 전향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야당 탓 하지 마시고, 공정성제도 두세 가

지 제도만 딱 도입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그 제도 전환과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그것은 여당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한테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유승희 위원님 발언하시면 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답변하셔야지요. 의지를 밝혀 주셔야지요.

○**위원장 홍문종** 우상호 위원님 발언하실 때마다 제가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웃음소리)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입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지난 9월 10일 국정감사에 제가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는데, 특히 지금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 임무 관련한 강조를 하고 또 인터넷 포털의 소송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포털은 우리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때 포털의 기사 배열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닌데 ‘그 기사 배열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마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도 모르고 질의를 한 사람이 돼 버려서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포털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소관이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포털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그 당시에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오해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포털은 지금 워낙 넓은 범위를 업무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포털이 신고하는 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임시조치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기사 배열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때 잘못 답변하셨지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서로 이제……

○**유승희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날 죽 포털의 뉴스 배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유승희 위원** 제가 따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정책국 관련해서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포털에 관련한 표현의 자유라든지 임시조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러한 사항은 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고 인터넷 포털 관련한 정책은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법령과 업무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어저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질의를 너무 그렇게 넘겨짚어서 답변하지 마셔야지,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죄송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9월 24일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해서 입안예고 중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유승희 위원** 그 내용이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삼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에 삭제, 차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안예고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유승희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제삼자의 요청으로 또는 직권으로 명예훼손을 자꾸 심의하려고 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기본적인 입장은 특히 저희들은 공인은 워낙 배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저희들이 꼭 지킬 것이고, 다만 지금 성 동영상이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사실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약자들,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자기의 나쁜 그림들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이런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뜻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약자를 얘기를 하시고 공인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공인을 제외한. 특히 이게 더 큰 문제지요. 공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되면 더욱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약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약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도 대리인을 통해서 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도록,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삼자 고발로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심의규정을 고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강행을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이 표현의 자유 부분이라든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형법상 처벌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무리하게 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리한 규정 변경을 하는지, 굳이 이렇게 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슨 사상경찰 역할을 자임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도 이 통신 심의규정을 이렇게 바꾸는데 있어서 저희들 그 위원들이 합의제의 정신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를 불식시키겠다 그런 뜻이 사실 강합니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섞어서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심의규정을 개정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터넷 사전 검열을 통해서 권력자를 비판하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선 공약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라리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방통위가 새로 만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명예훼손 심의를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승희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얘기 좀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하여튼 명예훼손이라고……

○**유승희 위원** 아니, 위원장이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유승희 위원** 이런 심의규정을 자꾸 강행을 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대와도 역행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끊임없이 후퇴시키는 조치가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 누구를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의규정 개정이에요, 도대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유승희 위원** 명예훼손 심의를 그쪽에서 전담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이것 누구를 위한 것이냐……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제삼자에 의해서 명예훼손에 걸려 있는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한 분 아닙니까. 이분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약하지 않았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물론 그것을……

○**유승희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뭐라 그랬어요?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

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겠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심의규정을 만든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 국감에서 이것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행했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강행했다고 할 때는……

○**유승희 위원** 강행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이 그 9명의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수로다가 결정을 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강행했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저는 합의제 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홉 분의 위원이 입안예고에 대해서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강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유승희 위원** 방심위 내부에 3개 노조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3개가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거기서 다 반대했잖아요, 이 규정 개정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반대를 했지만 결국……

○**유승희 위원** 아홉 분이 다 동일하게 합의에 의해서 지금 찬성을 한 겁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지금 입안 예고할 때 사실 그 아홉 분이 다 나름대로 양해도 해 주시고 이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강행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행을 하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러면 심의규정 개정한 것에 대한 그 회의록이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회의록 있지요.

○**유승희 위원** 회의록 지금 좀 쭉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회의록이 본인들에게 아직 확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받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뭘 확인을 받아요? 회의를 했다는 회의록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뭘 확인을 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글썬, 회의록……

○**유승희 위원** 회의록을 내주시면 되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유승희 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회의록을 내놓으시라고요,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회의록을 당장 못 드리는 이유는 본인들에게 확인을 일단 받고서 사실은 이 회의록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두 간사님께서 아주 소신껏 또 평소에 생각하시던 그런 논리를 잘 말씀해 주셨고, 거기다 또 우리 허원제 부위원장님 이임사, 조금 긴 느낌은 있지만 그동안에 정말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 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 분 말씀, 물론 다른 분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발언도 많이 했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들어 보면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야당 간사께서 지금이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진다면 수신료 인상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놓고 얘기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야당에서 제시한 공정성 담보 방안이 시대 흐름에 맞는지,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 심의할 때 논의할 일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공언을 하셨으니까 법안을 두고 한번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것하고 관련지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공직에 계시면서 이러한 중요한 고비에 여야 사이에서 또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또 부처 간의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

지고 좀 더 현실적이고 여야가 수용 가능한 그런 안을 이 합의에 도달하게 만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또 본인을 위해서도 뭔가 국가를 위해서 큰 것 하나, 국민들 위해서 큰 것 하나 성사를 시키면 보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저희 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34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이 상황을 푸는 것이 사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또는 경영 효율화 같은 것을 완전하게 갖춰 놓은 다음에 인상하자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서 서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수신료 인상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예, 꼭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들으신 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수신료 문제는 논의조차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들도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합의만 보게 되면 정말 두고두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있지요?

○**위원장 홍문종** 예.

○**徐相箕 委員** 방문진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徐相箕 委員** 오늘 정책적인 질의는 한 번도 못 받아 봤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徐相箕 委員**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사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실제로 그날 국감 끝내고 MBC 본사에 가 보니까 거기도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지

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그래도 최소한도의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 될 책임을,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방안이 있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지난번 말씀 들은 뒤로 아직 협의할 시간을 못 가졌는데요. 조만간 지역사들 사장단하고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사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우리 또 상임위원회 열릴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감사합니다.

○**徐相箕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방문진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이개호 위원** 대한민국이 정말 소모적이고 또 불필요한 이념의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또 그게 돼서도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요체 아니겠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처럼 다른 것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드는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각을 가져야지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 되고 또 정부나, 아니면 자신의 조건과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정말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죽 들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면서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면서 국민들한테 무려 15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했던 분을 공산주의자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대한민국 수도의 행정의 책임자를 친북인사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본인은 확신으로 또 다른 분들에게 강변을 하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양식 있는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과연 저러한 자세와 태도가 합당한 것인지 굉장히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던 문재인 우리당 대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고집을 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을 지지했던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공직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과연 합당한 자세인지, 본인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협한 인식 속에서 공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도 정말 필요한 조치,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아까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까마는 그런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과감하게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님은 공직을 맡기 이전에 정말 균형 있고 건전한 생각, 건전한 이념, 스스로는 애국진영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생각들을 건전하다고 지금도 강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은 별도로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말 균형 있는 생각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을 합니다.

정책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종 위원장님,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서 심의를 죽 해 오고 계시는데 가장 위배 건수가 많은 커뮤니티가 어느 커뮤니티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일베입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압도다수, 또 일베 말고 디시인사이드라는 곳도 있습니까, 커뮤니티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거기도 못지않게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많은 위반 건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니까 굉장히 반사회적입니다. 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권리침해, 또 도박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강도로 위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입에 담기도 정말 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이 이메일 인증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인인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접속이 많을 때는 2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는 대단히, 그런 면에서 보면 반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 위반을 수시로 다수 하는 이러한 사이트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트 폐쇄를 포함한 아주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니까 일정 기간 접속 차단하는, 영업정지처럼 그렇게 하는 제도도 한번 구상을 해 봄 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도 우리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일베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도 표명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일베하고는 저희들이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바로바로 자율 삭제를 하도록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역시 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건수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비해서 많고, 그래서 아무튼 일베에 관한 경우는 저희들이 좀 중점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일베의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조금 어떤 방향에서든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지역방송의 장애인 자막방송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위원장님은 금년 말까지 지상파들의 장애인 지원 자막서비스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단 형식적으로는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중앙지상파들의 경우에는 100%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방송은 금년 말까지 다 안 되겠더라고요.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진도가 잘 나가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지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지원금이 상반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해서 상반기에는 진도가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정부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특히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는 사실 금년에 작년보다도 훨씬 높여 잡았는데 예산지원은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 아닙니까? 장애인방송 지원금액이 작년하고 아주 동일한 규모로밖에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방송은 도저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 또 지원해 주는 장애인방송지원금 중에서도 지역에다가 35%, 중앙에 65% 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방송환경 때문에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지상파들이 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지방이거든요. 지방인데, 다 좋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중앙지상파를 시청하는 사람들과 또 지역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간의 차별을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상파의 시청이라는 것은 보편적 시청권으로서 전 국민이 동일하게 누려야 할 그런 권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방송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조금 확대해 주는 것이 방법이지만 그것이 정 어렵다면 배분비율이라도 중앙지상파에 비해서 지방지상파 비중을 좀 더 높여 주는 것이 우선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쪽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비율을 높여 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박효종 위원장님, 방금 우리 이 개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례이고 전반적으로 SNS상의 음란 그리고 불법도박 등 유해정보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과거 2013년까지만 해도 국내사이트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국내사이트는 1% 미만이고 사실은 전부 다 외국사이트들의 유해정보가 범람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꼭 풍선효과처럼 그리고 한 군데를 규제를 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국내업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업계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율규제가 없는 외국업체들 쪽으로 전부 다 유해정보가 옮겨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국내에 법인이 있는 외국사이트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없는 외국사이트가 있잖아요. 국내법인이 있는 저기를 한다면 또 없는 데로 옮겨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해서 거기까지도 좀 차단하고 저기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일베사이트는 정말 여러 차례, 지난번 1차 국감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나친 지역차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말 정상적인 뭐랄까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사실은 규제가 솜방망이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와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분?

그러면 최민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3분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5분씩 합시다.

○**위원장 홍문종** 5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5분에 끝내시는 것으로.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결합상품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9월 24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더 파고 있어서, 이중에 무료 저가 허위 과장 광고행위, 이것 규제하겠다고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초고속인터넷 0원, 3년이면 100만 원, 명품가방 가격이 남는다, 완전 무료, 이런 것 그냥 버젓이 막 벽에 붙어 있고 난리던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9월 1일부터 다시 시장조사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말이지요, 거대통신사들이 방통위를 엄청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점이 아주 몹시 기분 나쁩니다, 저의 친정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제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는 데에서……

○**최민희 위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계속 파고 있어서 현안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 들어가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감사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지난 주말에 감사를 끝내고 지금 자료정리하고 법률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왜 시청자미디어재단 문제를 이렇게 파헤쳐서 감사하라고 했는지 혹시 제 취지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대강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초창기에 기강 안 잡히면 개판됩니다. 그것 막아야지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데 제가 지난 국감 때 말씀드리고 나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몇 군데. 그런데 그중의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인카드를 클린카드여서 술집에서 결제가 안 된다면서 제 말을 반박했어요. 이것 참 잘못 보신 건데, 우리가 이런 자료도 없이 얘기했겠습니

까? 술집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기획안을 보니까 거기 재무감사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사감사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기관이니까 처음서부터 올바르게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재무감사가 급해서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인사감사 부분도 내년에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처지가 어려우신 것 압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어느 정도의 소신과…… 어느 정도가 아니지요, 최소한의 소신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들이 위원장님에 대해서 일정하게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소신껏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요.

수신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민언련 활동할 때 최하 55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인상안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했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만일 우리 당처럼 '방송공정성제도 몇 개 해 주면 수신료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받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상호 간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몇 가지 장치만 마련된다면, 특히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물가연동제였거든요, 그때부터.

그리고 허원제 부위원장님, 장문의 격론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격론에 핵심이 빠졌습니다. 지금 저 정도 올려서 KBS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BBC를 꿈꾸는 우리가 겨우 1500원 깎아서 500원, 700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 볼 것을 여당과 홍문종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요.

김재홍 부위원장님,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제가 잘 알지요. 사전협의를 잘 안 되면 사실 회의를 미뤘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는. 그래야 합의제니까요. 그런데 사전협의를 잘 안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 위원께서 여러 말씀 하실 때 되게 억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억울한 얘기, 허원제 부위원장 정도는 아니라도 충분히 해 보십시오. 뭐

가 그렇게 억울해서 표정이 그러신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전협의의 개념은 법규에 규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여러 차례 사전협의란 공영방송이 이사를 인선하는 데 있어서 그 인선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협의다,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그것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거부한 이유는 법적인 결격사유가 아닌 한 다시 사전협의로 무슨 자격을 정할 수 없다, 또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이유를 대면서 최성준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여권 상임위원께서도 반대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사전협의를 했다는 그 간담회 성격의 티타임에서 한 두어 차례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나는 공모기한이 끝난 뒤에 몇 분이 응모하셨다 하는 집계를 보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무처 담당자로부터. 두 번째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들이 각자 개별 추천하는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분들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신원조회 같은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인선의 기준과 원칙을 최소한 마련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전혀 없었고요, 저는 그것에 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선을 하는데 임명권자가, 임명청이 인선의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사전협의를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사전협의를 그런 사전협의이지 아까 말씀드린 티타임, 거기에서 무슨 응모, 일정이란가 결격사유 검증이란가 몇 명이 응모했다든가 이것은 사전협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먼저 최성준 위원님께 간단히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아까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OBS가 지난번 방통위 회의 때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1% 올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안 받아들여지고 광고판매 최소지원 규모를 민방

수준으로 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시는 거지만 OBS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자체 제작을 40%나 하면서, 민방이 대체로 10%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렵게 그렇게 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개국 이후에 지금까지 근 3000억 가까이 특별하게 큰 이득이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 붓기만 한 그것을 평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 방송사를 살리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정말 뼈를 쥐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1500만 수도권 경인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결국에는 OBS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 경제적인 면이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방송들과의 복잡한 연계 관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께……

하나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부탁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사전협의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부위원장 말씀을 들을 때는 사전협의를 없었던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임명 절차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소회가 있었습니다.

미방위 첫째, 2013년도 첫째 그때는 문방위였지요. 문방위 때 이것이 잠시 논란이 됐었는데 야당 상임 위원님들 가운데 여러 분께서 사전협의 이것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사전협의에서 사실상 모든 게 결정이 다 이루어진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 가지고 공식적인 회의는 무의미하다, 요식절차다, 이것은 공식 회의를 무력화한다, 그런데 사전절차 협의라는 것은 법에 근거도 없는 거고 탈법적인 건데 여기서 사실상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공식 회

의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는 요식절차가 되고 있고……

또 사전협의는 속기록도 없다, 무슨 이야기했는지 기록이 없다, 사후의 일을 알 수도 없다, 통제 안 된다, 이것 없애라라고 야당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요하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거꾸로 다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소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은 잠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당부 말씀인데 부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해서 사족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 때도 마찬가지로 부위원장님이실 때는 어쨌든 방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를 가급적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된 의사, 결론, 통일된 의사, 전체 위원회의 의사를 전달해 주셔야 저희가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착오가 없고 혼선이 없을 것이고.

가끔씩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꾸, 원래 사실은 부위원장님이 경륜 있으신 분이지만 소신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에 방통위 들어가실 때도 일부 염려하는 말씀이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위원장이 되실 때도 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자기 개성을, 자기 소신을 죽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솔직히 있었는데 중대한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헛갈리면 상임위원 소위원회에서든 이분이 전체 예산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일까, 아니면 따로 알아봐야 되냐 하는 과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부위원장의 업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에 김충식 부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비교적 잘하셨어요.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보면 ‘내 개인 생각이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전체 결론은 이거다’라고 해서 아주 신사적으로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데 차질이 없었는데……

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의 말씀 드

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정말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분명히 보고를 드릴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적으로 하거나 정파적으로, 더군다나 기분이 나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사전협의를 안 한 결과 MBC 방문진 이사 아홉 분과 감사 한 분, 열 명의 임원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여야 논의해서 협의해서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많은 질의가 집중된 고영주 이사 건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그것 말고도 세대별·지역별·전문 영역별 이게 많이 치우쳤다, 다양성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열 명의 방문진 이사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점은 방통위가 사전협의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협의를 했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가지 제도개선안 중의 하나, 정말 방송통신위원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관례화된 정치권의 6 대 3 몫 나누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필터링 역할, 제가 지금 문제제기한 성별·연령별·전문성 영역별 다양성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 것인가 하는 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준 위원님!

○**정호준 위원** 위원장님, 통신3사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LTE, LTE-A, 광대역 LTE-A, 기가 LTE 서비스, 하도 너무 많아 가지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혹시 위원장님은 기가 LTE 서비스라는 것이

어디서 사용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사용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따로 사용……

○**정호준 위원** 방통위원장님도 모르는데 소비자 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특정사가 내놓은 상품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특정사가 아니며 가지고……

○**정호준 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통신3사는 각종 최신 서비스들을 광고하면서 가입자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이나 내 학교, 아니면 내 직장에서 이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커버리 지의 정보는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기가 와이 파이, 아까 3밴드, 광대역 등의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과대·과장 광고가 아니겠습니까? 위원 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만약에 실제로 서비스 되는 지역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것 같이 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준 위원** 그럼 문제가 있겠지요.

이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가 LTE 서비스를 하려면 제가 특정 기기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 갤럭시 최신폰 이상의 단말기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고가 단말기 구매를 조장하 는 부분도 있고, 또 기가 LTE 서비스는 전국 서 비스를 위해서 5만 개 이상 기지국이 있어야 된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현재는 500 0~6000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은 전국이 다 커버리지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대·과장 광고로 통신 과소비를 유발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통신사 광고 등 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허위·과장 광고 살펴보고 있는데 같이……

○**정호준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직 그 부분은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만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것도 좀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거주 하는 활동 지역 그리고 맞는 통신사 단말기 요금 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통신서비스 별 그리고 상품별 커버리지 제한 사용자 고지의 무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촉 구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확한 정보를 고 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이번 EBS 국감을 살펴보니 유아·어린이 대상으로 한 상업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말 현재 전체 광고 매출의 36.6%, 9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장난감 패스트푸드 과자 등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형태가 아이들에게 충동적 소비 형태와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상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를 부추겨서 부모와 아이들 간의 갈등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어린이 대상 광고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밤 9시 이전까지 방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로 모든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지하는 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방송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패스 트푸드 등 이렇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평 장히 많이 규제,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 럽 같은 경우.

따라서 우리도 EBS에서 유아·어린이 방송시 간 때 상업광고를 금지하거나 혹시 규제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EBS 측과 협의를 하시는 건 어떨까 하고,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중** 저희들이 사실 광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EBS에 관한 위원님 의 지적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광고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아주 착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리고 코바코 사장님께 여쭙겠 습니다.

1년 동안 EBS 광고 매출을 보니까 맥주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교육방송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맥주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마무리 1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문종** 예, 마무리하세요.

○**정호준 위원** 그래서 EBS에 부적절한 광고를 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존립 목적을 해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입니다.

EBS 측과 협의를 해서 부적절한 광고는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사례 파악이나 제도개선도 연구반에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조사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정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지금 지상파와 SO사업자와 갈등이 매우 심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지금 뒤늦게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지상파의 비협조로 별로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상파의 빠른 방송환경의 악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고려한다면 지상파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같은 경우에 모바일 IPTV 이용가격을 기존 1900원에서 3900원으로 무려 2배가 넘는 그런 폭증을 시키는 요구를 한 것이나 또는 VOD 제공가격을 1000원에서 50% 인상해서 1500원으로 또 무료화 시점을 일주일에서 3주일로 늘린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갑작스러운 대폭 인상이다, 소비자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위 소비자들의 주권과 지갑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 한 두 가지 정도는 서로 협의를 어느 정도 이

루어 가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중간에서, 사실 저희 한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꼭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뒤에서라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오늘 내내 저희들을 괴롭힌 방문진 이사장께서 사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고, 검찰과 심지어는 공직사회조차도 김일성 장학생이 프락치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서슴없이 했어요.

박효종 방심위원장께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박효종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위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북한의 체제가 매우 강력하고, 소위 정교하다라는 주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위 세계적으로 이미 공산주의가 물러나고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립된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 체제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여러 분야에 프락치를 심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북한 체제에 비해서 매우 허술하고 허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영주 이사장의 기본적인 논리는 입만 열면 애국, 애국, 애국, 거기다 진영 자까지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저는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북한 사회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사실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국민들을 모욕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1500만 표에 가까운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500만 명의 국민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고영주 이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의 추억 속에 빠져 있고,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분 같습니다. 폐기 처분된 공안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빠른 ICT의 첨단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더더욱이 그 첨단 기술과 분야의 상징인

방송 부문에 있어서는 더욱더 안 어울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고영주 이사장께서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방통위와 우리 미방위가 힘을 합쳐서 퇴진시켜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할 시간 1분을 더 주세요.

지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입법 과정 또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통 시장의 정상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단통법 효과가 한계에 있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ICT 분야에서 빠른 기술 진화로 인해서 소비자 권익이 상당 부분 교란되거나 침해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방통위가 좀 더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장치도 강화하는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공영방송인 MBC 이사장이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등장되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생태계의 정상화는 매우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 앞서서 KBS 수신료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은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온 국민에게 철떡 같이 약속한 사안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나 전임 상임 부위원장께서 모든 책임을 야당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아래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리에 맞고 사리에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간사가 이야기하신 대로 KBS 수신료는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금방 할게요.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관련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방심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6 대 3 구조에서 표결을 해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또 다섯 가지 내지는 여섯 가지 정도 지적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인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 시에만 제삼자 또는 직권으로 심의를 허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공인이 도 대체 범주가 무엇인지도 문제일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일반인은 그러면 공인과 달리 법원 판결 없이도 제삼자 내지는 직권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공평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잃어버린 7시간 관련해서 재판과 하고 있고, 산케이신문 기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이 끝나서 그 산케이 기자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에 대한 모든 글을 삭제한다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지금 명예훼손 관련한 심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너무 자의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더러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저는 축소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법 개정을 할 수 없도록, 심의규정을 고치지 못하도록 아예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를 방심위가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중재위라든지 차라리 그러면 방통위원회 명예훼손분쟁위원회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장에 방심위가 제삼자 내지는 직권에 의한 명예훼손 심의에

대한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그 우려를 하여튼 저희들이 심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아홉분의 합의제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승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내용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파악했고, 회의록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절대 강행한다든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방송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왜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른 데 자꾸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희 심의위원회의 권위를 좀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의 진정성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승희 위원** 인위적으로 심의규정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제3의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직권으로 심의하는 자체가 온라인 상의,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지금 앞장서서 하시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런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유승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른 데다 넘기는 게 낫겠다고 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그러니까……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좀 이따 더 생각하고 얘기하시고, 제가 방통위원장님한테 두 가지 더 물어보고요.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그것 때문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이랑 단통법 위반을 했고, 그래서 과징금 체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그 사이에 계속해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지금 심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9월 9일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됐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보기에 그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고, 그것이 당연히 LG유플러스에 다 고지, 알려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심의 의결서 자체를……

○**유승희 위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직접 송달하는 행위는 아직,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 됐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30일 내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30일 이내에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8일에 하면 되는데……

1분만 더 주세요.

그 사이에 결국은 LG유플러스 다단계 위법행위가 재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서를 곧바로 심의 결정하는 대로 통보를 했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바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심의의결서의 시정명령을 받고 안 받고에 관계없이 만약에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계속 위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승희 위원**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당연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조치가 또 취해져야 된다는 말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파라치제도, 지금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되어서 영세 판매자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지금……

○**유승희 위원** 결국은 서민들의, 영세업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제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지금 그런 역
울한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유승희 위원** 제도 개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긴 합니다마는 이동통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없앨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 상한액을 낮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도를 일단 그대로
살리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종사자
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
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가려내는 제도
적인 심리 절차, 그다음에 또 대심적인 구조, 이
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
를 폐지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
는데 포상금 상한액을 낮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악
순환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홍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방문진 이사 내 여성이 전무한 것은 정말 심각한
결과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
님이 좀 더 내부적인 논의를 신뢰를 갖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방통위원회부위원장 지금 새로 임무를 하게 되
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더 신뢰를
갖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잘 하실 겁니까? 두 분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물론 협
의할 것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고칠 걸 고쳤
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희 위원** 합의제 정신에 의해서 저는 부위

원장님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더 근본적으
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까지도 노력
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하도록 하겠습
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대
해서도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방통위원회 위원장님
께서 앞장서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셔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런 방문진
이사장 사태도 나지 않고요, 결국은 방송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정쟁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방문진 이사장 부분은 저는
이념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향된 시
각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
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의식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이사장님께서 자진 사퇴
해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
다면 방통위 차원에서도 해임 관련한 그 절차라
든지 조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부분하고 이사장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
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방송공정성위원회를 통
해 가지고 오래 기간 논의하셔서 일응 합의를 하
셔서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KBS 사장
때부터 인사청문회 제도 등을 곧 시행할 예정으
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사의 자격 제한
이런 것들은 이미 입법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응은 그런 부분에 우선 먼저 시행이 이루어져
서 그 상황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
고요.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일응은 그 해임에 대해서 권한이 없
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계속 여러 분이 말씀을 하
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국회 차원에서는 그 정도까지 만
들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돼

서 특별 다수제라든지 제작·편성에 대한 독립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하면 안 될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KBS 금동수 부사장님!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위원장 홍문종** 조대현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11월 23일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KBS 사장님을 또 선임해야 되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예, 지금 공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홍문종**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이번에 청문회 하는 것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어떤 자질을 갖춘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자질을 갖춘 분이 KBS 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공영방송의 가치와 방송의 독립성, 그다음에 현재 방송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신료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금동수** 그걸 포함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그렇습니까?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간……

제가 고영주 이사장님께, 지금 북한이 우리 남쪽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위원장 홍문종** 사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너무 느슨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꾸준히 정상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거기에 방송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방송이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위원장 홍문종** 이사장님께서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신 걸 알고 계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투쟁의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모든 생각을 폭넓게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국정감사가 오늘은 끝납니다마는 우리 방문진 이사장님께서, 저희가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나오셔서 국회에서 증언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국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숙고하시고 이사장직을 수행하시면, 잘 수행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명예훼손 관련한 심의 권한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홍문종** 그리고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에 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가 하여간 현명하게 해결을 해서 수신료가 꼭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방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EBS 통합사옥건설단장님, 지금 사옥 건설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장 이상철 예,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장 이상철 예.

○위원장 홍문종 노조 반대 이제 없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장 이상철 예, 노조 이제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반대하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장 이상철 예.

○위원장 홍문종 오늘 수감기관들은 목적과 기능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수감기관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자세로 헌법적인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권은희 위원, 배덕광 위원, 서상기 위원, 최원식 위원, 박민식 위원, 강길부 위원, 조해진 위원, 민병주 위원, 류지영 위원, 우상호 위원, 문병호 위원, 이개호 위원, 최민희 위원, 송호창 위원, 장병완 위원, 정호준 위원 전병헌 위원, 유승희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국회 본관

2층에 있는 영상회의장에서 화상회의를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행정실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미래부 장관관 및 주요 간부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고, 출연연 등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세종청사에 배석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화상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가 국회 영상회의장을 활용한 상임위 최초의 국정감사인 만큼 미방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기관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2시0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0인)

강길부	권은희	류지영	문병호
민병주	박민식	배덕광	서상기
송호창	우상호	유승희	이개호
장병완	전병헌	정호준	조해진
최민희	최원식	홍문종	홍의락

○청가 감사위원(1인)

유일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김부년

○피감사기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기획조정실장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전영만		
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방송기반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종		
사무총장	허의도		
기획조정실장	조기진		
방송심의1국장	이종대		

방송심의2국장	김인곤
통신심의국장	조광휘
권익보호국장	박우귀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이은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사무처장	임무혁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금동수
편성본부장	권순우
T V 본부장	이응진
기술본부장	김석두
시청자본부장	김성오
정책기획본부장	서재석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신용섭
부사장	윤문상
방송제작본부장	김병수
학교교육본부장	김유열
융합기술본부장	신영대
콘텐츠사업본부장	손홍선
정책기획센터장	정호영
콘텐츠기획센터장	류현위
경영지원센터장	김동순
대외협력국장	이승훈
디지털통합사옥 건설단장	이상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곽성문
기획조정실장	김종량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
경영기획실장	최수영
시청자진흥본부장	박태욱
기획정책부장	권오상
경영지원부장	박정호
시청자지원부장	장영희
미디어진흥부 직무대리	채지혜